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사도행전 10:34),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교회가 인종 화해 고리 연결한다!

CT,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인터뷰 통해 인종갈등 해결방안 밝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한 미국의 혼란은 마침내 "인종차별"이란 불편한 진실이 빛어낸 결과다. 언론이나 학자들은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라고, 비판하고 그 기원이나 제도적인 문제들을 분석해준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선택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백인들이 더 많이 지지하는 공화당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에 기대를 걸어도 현재 총체적 차별 대우를 받는 흑인들의 바램과는 동떨어진 방안만을 제시할 뿐이라고 허핑턴포스트는 지적한다(Democratic Leaders Play Catch-Up On Black Lives Matter Movement: There's a gap between what young Black activists are demanding and what Democratic

lawmakers will act on. Can George Floyd's death change that?). 한마디로,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을 비롯한 주류 정치인들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 소망이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렇게 소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미 침례교단내에 흑백화해와 사회정의의 구원위한 운동(the New Baptist Covenant)을 2008년부터 벌이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카터 전 대통령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인터뷰를 통해 묻고 있다(Jimmy Carter: Pursuing an Arc of Reconciliation: The former president has a new hope for racial justice-starting with the church).

(타입지는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흑인 35명의 이름을 표지에 적었다. 카파, Titus Kaphar는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흑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에 대해 "내게 희망을 말하지 말라"며 "미국은 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인종화해에 열정을 품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저는 플레인스에서 서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외진 시골 마을 아처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 최고의 교회는 성마가 아프리카감리감독교회(St. Mark's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시민은 북부 아프리카감리감독교회 5곳의 감독이었던 윌리엄 데커 존슨(William Decker Johnson)이었습니다. 그분이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섬터 카운티에서는 가장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존슨 목사가 주말 동안 집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이 카운티 신문의 1면

기사로 실릴 정도였지요. 부모님과 누이 둘, 그리고 저는 성마가교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면화, 땅콩, 옥수수를 재배하던 들판에서 흑인 친구들과 함께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놀면서 흑인 문화에 빠져들었을 뿐 아니라

흑인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백인가족이었지요.

-학교에서 인종문제에 대해 어떻게 배웠는지요?

여섯 살이 됐을 때, 저는 백인 친구들과 함께 플레인스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마 1930년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엔 사회 전반에 걸쳐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허용됐지요. 흑인들만의 학교와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투표도 할 수 없고 법조계를 포함한 공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에나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농장에서 거의 흑인들과만 어울려 그들의 문화에만 폭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겐 백인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간호사였지요. 어머니는 집을 비울 때가 아주 많았고, 아버지도 바쁘셨답니다. 그래서 저를 돌봐주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주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인종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사회의 일반적인 표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3면으로 계속)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 5회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신앙도서로 '코로나 역경' 극복하는 기회 마련"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조명환목사)가 매년 실시하는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행사가 금년에도 시작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예배가 봉쇄되고 상당부분 자택근무로 형태가 바뀌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런 역경의 시간을 극복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신앙도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신앙적 연단을 쌓는 길이라고 판단 독후감 공모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제 6회째 이어지는 금년 독후감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신영),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위츠), '침묵'(앤드류 슈사쿠), '말그릇'(김윤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리처드 탈러) 등이다. 이 추천도

서는 지난해 심사를 맡은 백승철 목사(에피포도 예술인협회 회장)와 기독교서점협회장 전인철 목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응모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0달러, 우수상 2명에게는 300달러, 장려상 3명에게는 200달러의 상금과 부상이 전달된다.

마감은 금년 10월 31일까지며 독후감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 제출은 이메일 wcc-mmmailbox@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세기언 임원들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함께 원고 제출 시 이름과 전화번호, 출석교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자 기자)



시론 최혜근 목사



푸른초장 오세훈 목사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 김경일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u.edu | (213) 688-0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암, 성경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gbcc.org / cbc@lgbcc.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0년 제31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신학교 제31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도 드려지오니 **유튜브 Youtube KAPCQ** 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설교 : 조문휘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일 시 : 2020년 6월22일(월) 오후 7시

장 소 : **퀸즈장로교회**(오프라인) / 유튜브 Youtube KAPCQ (온라인)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 463-7163, (718) 886-4040

목회학과: 김금희, 김영미, 나종선, 박혜경, 전행복, 최진권, 한신희

신 학 부: 김 경, 문인숙

학장 : 김성국 박사 부이사장 : 허경화 장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비목(碑木)

초년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 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뻗혔네

이름 모를 산하(山河)에서 피를 내뿜으며 호흡이 다할 때까지 얼마나 그리웠을까. 아들을 전선(戰線)에 보내 놓고 목 놓아 기도할 어머니가, 동네 어귀에서 숨어 지켜보며 짝사랑했던 어여쁜 소녀가.

그 숭고한 죽음에 적막한 비목 하나 꽃힐 뿐일 텐데 나 억울하다 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다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그대들의 자유를 위해 나 죽어 가노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떠난 나를 위해 더 이상 울지 말고 남겨두고 떠나는 내 조국을 보듬고 울어주소."

6월에 다시 기억하는 현충일, 6.25, 연평대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랑스런 젊은 군인들의 피가 지금도 저 비목에 적셔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한 신앙' 필요한 때!

TGC Brett 맥크래켄 편집장, 교회가 '비필수적'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대한 자각반성 요구

미국에서는 COVID-19로 인해 세상이 멈추고 재택 명령이 내려진 이후 "필수적인 것(essential)"과 "비필수적인 것(non-essential)"이라는 두 단어가 대화중에 중요하게 떠올랐다. 필수적인 것으로 분류된 상점과 서비스는 문을 열 수 있는데 슈퍼마켓, 철물점, 주유소, 애완동물 가게, 세탁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 다른 것들은 "비필수적인 것"으로 분류돼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문을 닫아야한다. 그 중에는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소매점, 스타디움, 그리고 콘서트장 등이 있다. 교회는 다음 아닌 후자 곧 비필수적인 것에 포함됐다.

복음연합(TGC) 편집장 Brett 맥크래켄(Brett McCracken)은 교회가 너무도 쉽게 "비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보며 세상이 교회의 위치를 얼마나 손상시킬지에 대해서 걱정해 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Why We Don't See Church as 'Essential').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명령에 따라 예배를 취소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 발생하는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라는 상식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하루라도 빨리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 모임이 바이러스 전파를 증가시킨다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교회 폐쇄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비필수적인 것"으로 규정된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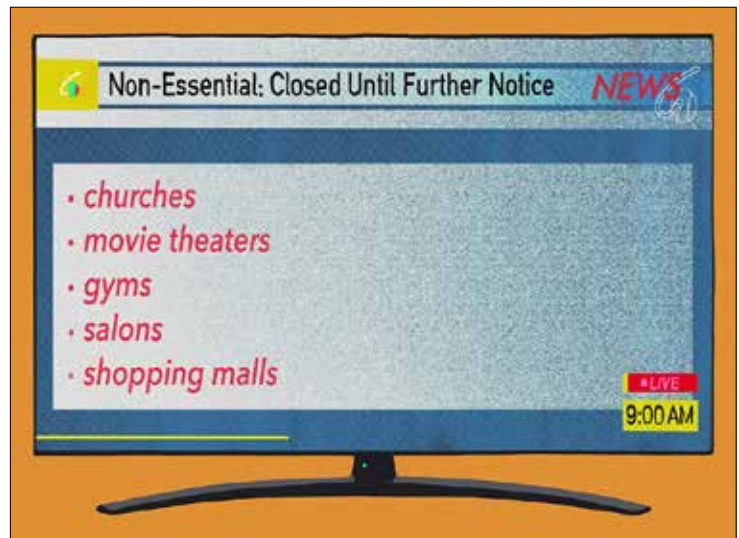
지금 COVID-19 감염을 막는 전략 자체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가치다. 비록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찾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사회활동 재개계획에 따르면, 교회는 내일삼, 체육관 그리고 영화관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있으면 좋은 사치"지만 없더라도 오랜 시간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항

동체에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오늘날 교회 모임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COVID-19 전염병이 새롭게 만든 현실이 아



교회가 '필수적'으로 분류되지 못한 책임은 기독교인 사유화된 영성, 소비자화된 영성 충분치 않음 알아야

존중해야 하고 또한 교회를 다시 여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교회가 너무도 쉽게 "비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보며 세상이 교회의 위치를 얼마나 손상시킬지에 대해서 걱정해 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교회, 있으면 좋은 것, 그러나 결코 필수적이진 않은 것

캘리포니아 사회활동 재개계획에 따라서 3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 모임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지사의 발표를 들었을 때 슬펐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감염 위험이 높다는 사실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주지사의 발표는 현대 서구사회에서 교회 모임이 얼마나 초라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

목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교회는 한마디로 엔터테인먼트 향목에 속해 있다. 즐기는 데는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또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더더욱 건강의 위협을 감수하면 서까지 재개해야할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 교회다.

주류 판매점, 마리화나 판매점, 그리고 골프 클럽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굳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역사에 비취볼 때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알고 있는가? 단지 수십 년 전만 해도 사회에서 교회에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활동이었다. 개인 뿐 아니라 공

니라 단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현실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은 무슨 반기독교 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기독교인 스스로가 초래한 현실이다.

신앙, 철저히 개인화된 소비재

교회에 가는 것이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것과 비슷한 소비자 습관 수준으로, 다시 말해 굳이 없어도 상관없는 선호도의 문제로 전락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고 또한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대신, 교회를 개개인이 나름의 영적 구도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도 있는 일종의 선택지의 하나로 보게 됐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예, 엡3:7-12), 우리가 가진 무감각한 교회론은 종종 교회를 확실하게 비본질적인 장소로 강등시켰다. 표현적 개인주의를 누르기보다는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교회가 단지 사람마다 다른 영적 구도의 과정에서 있으면 좋은 것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무리 긴 기간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없이 지낼 수 있다.

게다가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들 흔히 간주한다. 성경책, 찬양은 워십 찬양, 그리고 한 두 개 영적인 팟캐스트만 있다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가?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나 구분 없이 다 신앙과 관련해서 "사유화된 개인 영성"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수주의자는 특히 "

개인"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표현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주관과 개인의 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진보주의자는 "사유화"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공적인 삶과 정책으로부터 종교가 분리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신앙과 관련해서 "안전하게 집에서 신앙생활하기"야말로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영구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라는 정책이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
E-mail: nykpress@gmail.com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Major: Brain / Gifted Educational Leadership,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Leadership, International Culture & Arts Leadership, Organizational / Ministry / Mission Leadership, Real Estate Management Leadership
Defense Fusion Leadership,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Public / Political Leadership, Sports Management Leadership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숨을 쉴 수 없어(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 위조지폐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8분 46초 동안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러 숨겨지면서 외쳤던 마지막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오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폭력에 분노한 미국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숨을 쉴 수 없다”란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정의 없이 평화 없다’(No justice, No Peace), ‘더 이상 참을 수 없다’(Enough is enough)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등의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한때 수감생활을 했지만, 그 후 방황하는 흑인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쉴 수 없다”를 외쳤던 그날 이외에도 그는 흑인 남성으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많은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2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밖으로 나오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들었을 때, 비무장과 비저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길바닥에 눕혀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했을 때, 특별히 46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했을 때, 그는 억울함, 공포, 좌절, 그리고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경찰에게 “제발, 제발”(please, please)을 외치며 ‘엄마’를 불렀던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는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 경찰의 과잉 폭력, 백인 우월주의,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들, 인종을 초월한 사회적 불의로 인하여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 그리고 어렵게 다시 오픈한 비즈니스를 닫게 만든 비상사태와 통행금지령,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욕설을 퍼부으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범죄자들... 평화시위를 망치는 방해꾼들, 불길에 휩싸인 상점들, 모든 것을 잃고 슬퍼하는 상점

주인들, 친절하고 정의로운 경찰관들까지도 불의한 경찰관들로 간주되어 위협받는 현실을 지켜보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LA 폭동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숨을 쉬어야 합니다. 영적인 숨을 쉬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와 폭동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약탈, 방화,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모든 불의와 악행이 멈추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과 자비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도록,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플로이드 사건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까? 만일 믿는 우리마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친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도록, 이 땅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숨을 크게 들이 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외칩시다. “나는 숨을 쉴 수 있다!!”(I can breathe!!!)

푸/른/초/장

오세훈 목사
(세계소망교회)



우리는 한국에서 이민 가는 길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와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새로운 이민생활 속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누구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자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지만 주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섬세한 주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마태복음 6장 46-52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의 괴로움도 관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도 때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에서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에게도 모질게 불어왔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도 찾아와 매를 맞고 쫓기고 돌을 맞

롭히므로 고통 중에 노를 짓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세상의 풍랑에 둔하여져서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은 나의 한 동작 한 순간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전부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시므로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는 물 위라도 걸어서 여러분 곁에 다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들을 택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 젓는 여러분을 살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두려워 말라는 주님을

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마11:28)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데 불행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마스크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왔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였을 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주님이 아니

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한 그곳까지 가려는 우리에게 험한 풍랑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목적이까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세상의 높은 파도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운 밤을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제자들처럼 노를 저어 봐도 겨우 십리를 갈까 말까 하고 목적이까지는 방향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향조차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목적이까지 인도해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 이는 나의 배에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시편 37:5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열려야 할 곳을 열어주시고 달을 곳을 단으시며 지켜주시기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풍랑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풍랑이 닥쳐오니 주님의 말씀보다 코로나 풍랑과 싸우느라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둔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주님은 물위라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나의 작은 숨소리까지 살피십니다. 나의 문제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danielosh@hotmail.com

물 위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요한복음 6장 16-21절

같이 읽어 봅시다.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하자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다 누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셨던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일을 의논하시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괴로운 삶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오라는 곳으로 가는데 뜻하지 않게 제자들은 그 거센 풍랑에 사로 잡혀 그 땅을 먹여주시던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거센 풍랑에 싸우다 보니 주님을 보는 마음이 둔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순간이라도 우리를 잊어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괴로운 노 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괴로움의 노를 젓다가 가슴을 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혹은 양심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코로나와 같이 보이지 않게 괴

영접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기쁨으로 영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관찰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괴로움을 털어줄까 살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풍랑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풍랑이 닥쳐오니 주님의 말씀보다 코로나 풍랑과 싸우느라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둔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주님은 물위라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나의 작은 숨소리까지 살피십니다. 나의 문제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danielosh@hotmail.com

3. 오라는 목적지까지 인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21절). 예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저편 언덕까지 인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와서 괴로운 노를 젓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살피시고 인도 하셔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 천국까지 인도해주시는 것

to Belong)에서 이렇게 썼다. “지역 교회의 겸손한 모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제 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다.” 결론으로, 나는 또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유화된 영성, 소비주의화된 영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많은 이들이 깨달으면 좋겠다. 사유화되고 소비주의화된 영성은 개인에게도 또 사회에게도 좋지 않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굳이 집

지금은 '교회를 통한 신앙' 필요한 때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신앙이 사유화되고, 개인화되고 또 소비 영역으로 전락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해가 된다. 건강한 교회공동체와 연관을 가지지 않은 개인적인 영성은 언제라도 일관되지 않은 이상한 상태로 변질될 수 있다. 크게 볼 때, 지역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회 또한 적지 않은 손해를 본다. 교회는 여전히 사회 공동체에 너무

나 중요하다(푸드 बैं크, 노숙자 지원, 교육 지원, 고아 돌보기, 상담, 등등). 또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에 기여한다. 교회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할까?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교회가 스스로를 “필수적인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 방침에 저항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그렇

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문화 전쟁에 불을 붙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교회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교회를 “비필수적인 것”으로 묶고 있는 이 팬데믹은 기독교인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라졌을 때, 세상은 과연 교회를 그리워할까? 교회가 애초에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사실

을 나설 필요조차 없게 하는 “나와 예수님 신앙”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건강하고 봉사하고 또 성장하는 지역 교회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은 교회를 통한 신앙이다. 교회를 통해 너무도 막강한 존재감을 갖게 된 신앙, 그래서 행여나 교회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바로 눈치 채고 애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를 나설 필요조차 없게 하는 “나와 예수님 신앙”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건강하고 봉사하고 또 성장하는 지역 교회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은 교회를 통한 신앙이다. 교회를 통해 너무도 막강한 존재감을 갖게 된 신앙, 그래서 행여나 교회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바로 눈치 채고 애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를 나설 필요조차 없게 하는 “나와 예수님 신앙”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건강하고 봉사하고 또 성장하는 지역 교회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은 교회를 통한 신앙이다. 교회를 통해 너무도 막강한 존재감을 갖게 된 신앙, 그래서 행여나 교회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바로 눈치 채고 애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작고 평범한 것

한때 뉴욕의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뉴욕을 방문하게 되면 지하철을 타지마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야 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대책을 내놓으면서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 지하철역과 지하철 안에 빼곡히 쌓여있는 낙서를 지우는 것이 대책이었다.

시민들이 많이 황당해하고 의아한 마음을 가졌다. 범죄를 줄이려면 예산을 늘려서 공권력을 강화하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웬일이냐는 반응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5년 동안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하철범죄의 75%가 감소했다고 한다. 모두가 그 결과에 놀라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작고 평범한 원인을 제거하면, 크고 특별한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원리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사실 아무도 낙서가 심각한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강취하는 무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관용한 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했다. 공공장소의 낙서를 지

때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라던 때가 생각난다. 여러 인적 가정들이 기와집에 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어른들은 저 옷마루 가난한 집을 보고 배우라고 어린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셨다. 그 집은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에 아주 작고 가난해 보이는 집이었다. 어른들의 말씀은 저 집은 아들이 육사(육군사관학교)를 갔다는 것이다. 70년대 초에 육사를 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방학이 되어 제복을 입고 고향을 찾아오게 되면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다.

아무도 그 집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기본이 갖추어진 가정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집안이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잘 자랐고, 어릴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가 달랐다는 것이다. 기본이 잘 갖추어지면 사람들에게 무시 받지 않는다.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학교를 가는 데, 양말을 신었는지, 운동화의 끈은 제대로 매었는지, 벨트는 착용했는지, 머리는 제대로 단정하게 빗었는지, 이러한 작은 것들에도 부모의 지도를 받으며 학

국회 고위직에 이어 광역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영전하도록 자기편 관리를 하더라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자행했는데도, 국회의원이 됐다.

변호사 시절 범죄 혐의를 받음에도 의원이 된 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하고, 스스로를 개혁자로 칭하는 것을 본다. 어떤 여성 의원은 자신의 과거 법관 시절 업무능력을 낮게 평가한 것을 상대방에 대한 탄핵의 사유로 꼽는다. 저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다. 머나먼 타향에서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모시면 파묘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선전물을 금지하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막겠다고 한다.

군대가 무엇인가? 적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할 군대를, 오히려 적의 요구를 들어서 같은 편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피아구별을 할 수 있을까?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군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강한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관용과 화해와 자유통일을 이루어가야

런 장면들의 전시장이었다. 한마디로 그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토굴의 미로를 따라가는 동굴속 박쥐의 서식지 같은 느낌이었다. 나치가 사람 취급을 안한 것이다.

무너진 나라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서러움들이 눈에 선하게 느껴졌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닌가? 일제 35년 분단 70년 10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절망하는 저들을 생각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주체를 외치지만 아무것도 주체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자유 대한민국도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그 결과는 상상치 못할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세계 10위에 가능한 경제대국의 위업도, 염치없는 인치에 의해 나라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날에 참담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교회의 기초

기초와 기본이 든든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미래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기초와 기본의 질서가 분명한 교회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세상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남편은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몇 년 전에 돌연사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지요? 천국에 가면 사랑했던 사람들, 부모나 친구들 성도들의 얼굴 식별이 가능한지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지요?
-한국에서 이정주 권사

A: 예,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던 것입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는 주의 재림 때까지 수면상태에 빠진다거나 천국과 지옥의 중간상태에 있는 어떤 대기소에 기다린다고 말하는 성도나 교회 장로님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상상이요 추론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흠은 여전히 흠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으면 육은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12장 22-23절을 보면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천상의 교회-승리한 교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은 후에는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몸에서 빠져나가 순식간에 삼층천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린도후서 12장의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의 천국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삼층천은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의 하늘이며 셋째 하늘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알고 사랑하던 사람들의 재회가 가능하며 식별할 수 있는가? 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국에 가

삼층천에 간 영으로 성도 간 알아볼 수 있어

면 영화(Glorification)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연애의 감정이나 감성적인 성격을 띤 재회와 재연합은 아닐 것입니다. 화란의 조직신학자인 헬만 바빙크 박사는 "죽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며 다음의 성경구절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이사야 14장 11절에 의하면 음부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바벨론 왕이 그들을 향하여 내려올 때 그인 줄 즉시 알아보고는 그에게 조롱 섞인 인사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으며. 2)에스겔 32장 11절에 의하면 강한 용사들이 음부가운데서부터 애굽 통치자와 그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의하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4)누가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가진 재물로 사귀 친구들이 하늘의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주었던 병자들, 우리가 동정하였던 세상 떠난 사람들 이 천국현관에 서서 영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서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그들의 선교활동의 열매인 전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중심의 사상들은 강조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벤트 식의 행사와 좋은 영상장비, PD의 행사와 좋은 영상장비, PD를 능가하는 방송제작 기술자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강단의 존귀함이 아니라 화려한 빛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무대만 찾게 되면, 또 이것에 경도되어 사람들이 모이면, 이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면 정말 교회는 미래가 없다.

최근 메일로 발송되어 오는 교회 광고물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이끄는 유혹이 크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초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 같아서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현란의 시대와 영적 기본기
우주여행이 곧 다가올 것처럼 빠른 세상의 일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단순하고 중요한 영적기본기를 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더욱 결심한다. 신앙생활의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나와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작고 평범한 기초

-가정, 조국, 교회



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작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그것보다 더 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큰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기초와 기본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무엇인가?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건물에 비유하자면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기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건물에 있어서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내부 인테리어의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백화점 내에는 수많은 화려한 제품들이 즐비했

교를 가는 아이가 있다. 반면에 얼마나 아이나 아침 늦도록 잠에 빠져 있다가 겨우 학교 갈 시간에 압박해 일어나, 화장실 가던 복장으로 슬리퍼를 끌며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도 있다.

두 아이의 수업의 자세와 성취도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함과 부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을 누리는 여유로운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하고 갖추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돈으로 치장하고 꾸밀 수 없는 사람의 기본기의 문제이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

개인과 가정, 가문뿐이겠는가? 기초와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도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을 볼노라면 정말 희한한 세상의 일들이 난무하는 것을 본다. 나라의 기본은 법치일 터인데, 법 해석과 적용을 고무줄 당기는 것처럼 하며 나라의 기초를 허무는 인치를 전횡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양의 이벤트들만 강조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 페스티벌이 끝난 공원의 허전함 같은 공허한 후회만을 가져올 것이다. 국가가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짧은 임기의 5년짜리 정권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만 껌뻑이며 기동뿌리 하나만 뿡아 놓아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말 것이다.

비리 수법이 막장 수준이라고 지적받는 전 청와대 관리가

하는 것이다.

세계사에서 전쟁이 끝난 후 군대를 계속해서 강군으로 이끈 나라들만이 온전한 평화를 이끌어온 것을 본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군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군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과연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사랑받는 나의 조국이란 말인가? 마음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100세의 노 장군은 가족들을 통해 말한다. 자신은 어느 곳에 묻혀도 상관없다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조국에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분열의 단초가 되는 것을 곤혹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참 군인이고, 참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본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무너진 나라, 서러운 백성

2년 전 폴란드를 방문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바르샤바의 역사적인 '게토'를 방문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독일군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마을이나 도시의 지정된 구역으로 몰아넣으면서 유대인 인구를 통제할 목적으로 정한 곳이다. 그곳은 자유가 없다. 마치 토굴 같은 흉구덩이를 파서 호롱불을 켜고 흠뻑 속에 생활 거주지를 세운 모습들이었다.

나치는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구역을 그렇게 게토로 지정하고 철조망 울타리나 벽을 세우고 그 입구는 경찰과 독일 군대가 지키면서 통행의 자유까지 금지하며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참으로 고통스

기본기를 갖춘 가정

기본이 갖추어져 있으면 인생에 기대할 만한 미래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본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라던 때가 생각난다. 여러 인적 가정들이 기와집에 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어른들은 저 옷마루 가난한 집을 보고 배우라고 어린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셨다. 그 집은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에 아주 작고 가난해 보이는 집이었다. 어른들의 말씀은 저 집은 아들이 육사(육군사관학교)를 갔다는 것이다. 70년대 초에 육사를 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방학이 되어 제복을 입고 고향을 찾아오게 되면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사모고(SAMOGHO)

대부분의 사모고 사람들이 말리에 사는 반면 16,000명 가량은 부르키나파소 남서부 지역에 산다. 이 지역 아프리카 기후는 매우 무덥고 건조하다. 또한 연중 강수량은 30-40인치에 지나지 않으며, 더운 계절에는 기온이 화씨 100도를 웃돈다. 사모고족은 부르키나파소의 네



강줄기 가운데 강 가까이 거주하는데, 이곳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녹지대가 더 무성하고 열기가 심하지 않다. 그러나 짜짜파리(수면병을 전염시키는)와 시물리움(simulium) 파리, river blindness를 전염시키는 등도 이 강 가까이 산다. 이러한 해충들로 인해 이 강 유역은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다. 흠어져 형성돼있는 숲들은 사모고 사람들에게 살 곳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숲들은 또한 새, 원숭이, 여러 종류의 곤충들과 하마들의 안식

처이기도 하다. 사모고족은 니제르-콩고어족의 만딩고어군에 속한 콩고어(Dungu)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사모고족은 본래 농부들로 수수를 주로 재배하며, 땅콩, 콩, 옥수수, 면화, 고추 그리고 다른 채소류들도 재배한다. 수입의 75% 가량을 농업에서 얻으며 나머지는 사냥과 수집에 의존한다. 가족들은 염소, 양, 닭 그리고 꿀벌을 길러 우유, 양모, 고기 그리고 꿀 등을 얻는다. 가계는 사모고족들의 기본경제단위다. 촌락들은 크고 대체로 인구가 조밀하다. 가족은 주변부족들과 거의 유사한 정방형에 편평한 지붕을 얹은 형태다. 그러나 사모고 촌락들

은 마을 담위로 돛형식의 곡물저장고들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각 촌락마다 이런 곡물저장고가 적어도 10개 이상 될 것이다. 또한 각 촌락에는 촌장이 있는데 촌장은 각 가정에 대해서보다는 가족의 계보에 대해 권위를 행사한다.

사모고족 사회는 구조적으로 부계혈통 사회로 사유재산은 장남이 물려받으며 권속의 재산은 아버지의 남동생이 물려받게 된다. 결혼한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된다.

서부아프리카 다른 부족들과 달리 사모고족은 딸이 결혼할 때 신부대를 따로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신랑은 혼전 선물을 신부의 가족들에게 주는데 선물은 대체로 닭이나 염소 따위의 가족들이다. 다른 서부아

프리카 지역의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일부다처제가 행해지기도 한다.

부르키나파소는 다양한 종족분포를 보이는데 나라의 민간전승이 이것을 반영하는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사모고족의 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들이 종족그룹 고유의 전통으로 참여한다.

사모고족은 동편에 위치한 모시 부족과 대체로 불편한 관계를 가져왔다. 침략과 보복이 잦았는데, 주로 모시족이 침입자들이었던 반면 사모고족은 계속적으로 복구를 꾀하는 편이었다.

신앙

사모고족 90% 가량이 무슬림들

이며 나머지는 다양한 종족신앙을 따른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다섯 기둥으로 불리는 중요한 의무들을 수행한다. 사모고족은 '최고신'을 숭배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으며, 그를 숭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을 통해서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우상이나 다른 물체들도 영이 있다고 믿으며 이 영들은 그 보답으로 그들의 최고신을 숭배해준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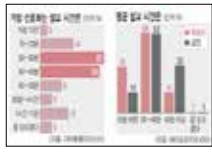
3개의 선교단체가 사모고족 가운데 사역하지만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모고 사람은 거의 없으며, 콩고어(Dungu)로 된 성경과 기독교방송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인 52% "설교시간 20-40분" 선호

예배 중 설교시간에 대한 미국교회 목회자와 교인 간 생각의 간극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사의 85%가 '평균 설교시간 4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같은 대답을 한 교인은 67%에 그쳤다. 교인들은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설교한다고 느끼는 셈이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지난해 9월 목회자 1000명과 교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평균 설교시간'에 대한 질문에 목회자의 28%는 '30분 이상 40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20분 이상 30분 미만'(26%), '15분 이상 20분 미만'(22%)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을 교인으로 바꿔 '목회자의 설교시간'에 대해 묻자 '30분 이상 4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29%, '20분 이상 30분 미만'이 24%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20분 미만'과 '50분 이상' 구간에선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자신의 설교가 '5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목사는 4%에 그쳤지만 교인 응답자는 18%라고 답해 성도들이 느끼는 설교시간이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 매코널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예배 중 어떤 요소가 설교에 포함되는지 목사와 교인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며 "목회자들은 설교와 관련된 자료 영상을 소개하거나 중간 찬양을 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이 교인들에게 설교 자체가 더 긴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인 2명 중 1명은 '20분 이상 40분 미만'(52%)을 가장 선호하는 설교시간으로 꼽았다. 조사에서는 교인들이 무조건 짧은 설교를 선호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긴 설교를 원하는 교인도 적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15분 미만'의 매우 짧은 설교시간을 선호하는 교인은 3%에 불과했지만 '1시간 이상'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2%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매코널 대표는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예배 재개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본질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온라인예배가 장기화되는 동안 교인들은 오프라인예배 재개 시 총 예배시간에 대해 더 민감하게 고민하게 됐을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짧은 설교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국제 종교 자유 촉진 위한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의 자유는 도덕적으로 긴요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연방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침들을 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동안 국제개발처 행정관과 협의해 미 외교정책 기획과 이행, 국무부 해외 원조 프로그램 등에 국제 종교 자유를 우선 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무부는 재무부와 협력해 국제 종교 자유 침해 특별감시국의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경제적 도구의 적절한 사용을 우선하는 권고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종교적 자유 프로그램 강화, 해외 원조 재배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계연도마다 최소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종교 자유 촉진 프로그램에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프랭크 R 울프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 모든 국무부 외교 공무원에게 3년마다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해외 직책의 인사를 맡은 모든 기관의 장은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훈련계획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또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집행부 및 기관은 해외 적격 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교 기관 및 단체가 미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때, 종교적 정체성이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등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

시위사태에 美코로나 재확산

하루 1만명대로 떨어지며 하강곡선을 그었던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 이후 불붙은 시위로 재확산하고 있다.



하루 1만명대를 유지하던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2만명대로 급증하며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4일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210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92만3887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째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9일에는 2만5069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플로이드 사망으로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튿날인 26일부터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가 시작돼 전국 대도시로 번져갔다.

플로이드 역시 사후 부검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1031명이 늘어나 11만173명으로 조사됐다.

'흑인사망' 미니애폴리스 "경찰청 해체..."

미국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市) 경찰청 해체를 추진한다고 CNN방송이 7일 보도했다.



9명의 미니애폴리스 시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 경찰청 해체와 경찰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삭감(defund)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사 벤티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장은 CNN에 "시 의원 전체는 13명이기 때문에 9명은 시 경찰청 해체와 경찰 예산 지원 중단·삭감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벤티 의장은 "경찰에 지원되던 예산은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분야로 옮겨질 것이며 시 의회는 시 경찰청을 대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티 의장은 그러면서 "경찰청을 없애는 방안은 단기간에 검토된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급하게 마련한 방안이 아니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검토했던 방안이라는 의미다.

경찰청 해체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경찰을 공공 안전을 위한 변화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흑인 사망 항의 시위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떠오른 '경찰에 대한 예산을 중단·삭감하라(defund the police)'는 외침은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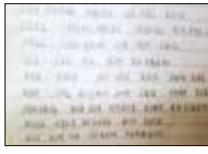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예산 지원 중단 움직임을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반격을 시도했다. 그는 이날 올린 트위터 글에서 "졸린 조 바이든(민주당 대선후보)과 극단적 좌파 민주당 인사들은 경찰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훌륭하고도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는 법 집행을 원한다"면서 "나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시위대의 경찰 예산 중단·삭감 요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시위대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흑인인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경찰 예산 중단·삭감 외침 뒤에 있는 정서를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과도한 경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 슬로건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에 지원되던 예산을 주택공급이나 교육 등 미국 국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 예산 중단·삭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에 성경 1만4558권 공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성경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북한 주민들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4일 밝혔다.



한국VOM 현수 폴리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북한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있고 성경 공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특히 북한 당국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쉽고 안전하게 성경을 전하는 기회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한 오디오성경과 성경책은 총 2630권이다. 대형 풍선에 쌀이 담긴 병과 함께 북한에 공급한 성경도 1만1928권이다. 이는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확인했다. 총 1만4558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VOM의 올해 목표는 북한에 성경 4만 권을 보내는 것이다.

한국VOM은 성경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보내온 편지(사진) 6통도 공개했다. 한 주민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했다. 종일 갇힌 채 작업하고 있다는 다른 북한 주민은 "책임자가 MP3(오디오 성경이 담겨진 MP3 플레이어)를 작업반 별로 보내줬고 반장이 당국의 눈을 피해 반원들에게 나눠 주셔서 감사"라며 "힘든 밤을 MP3 노래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힘내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까...

감염병 학자들 다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 종교 예배 등에 참석하거나 사람들 간에 포옹과 악수를 나누는 일이 1년 후나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감염병 분야 전문가 511명을 대상으로 20가지의 일상활동 재개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 참석이 일상 수준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자연스럽게 포옹이나 악수를 나누는 일이 1년 후나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도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포옹과 악수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응답도 6%에 달했다.

설문은 팬데믹과 그에 맞선 공중보건 대응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올해 여름' '3-12개월 이내' '1년 후' '불가능' 등 4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방조치 없이 우편물 가져오기' '음극상황 아닌 예약으로 의사 진찰 받기' '차량으로 이동할 만한 거리에서 1박 휴가' '미용실과 바비샵에서 머리 손질하기' 등 4가지 활동은 당장 올해 여름부터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일로 꼽혔다.

정상화에 3-12개월이 걸릴 것으로 꼽힌 일상 활동은 총 10가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은 '식당에서 저녁식사' '아이들을 학교와 캠프에 보내기'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가 1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저녁 파티 참석' '야외 피크닉과 하이킹' '대중교통 탑승' '비행기 여행' '체육관 운동' 등이 1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모두 40%를 넘겼다.

감염병 학자들 다수가 1년 후나 가능할 것이라고 꼽은 활동은 6가지였다.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 참석' '마스크 착용 중단' '포옹·악수'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잘 모르는 사람과의 데이트' '예배 등 종교행사 참석'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야외활동 및 소규모 모임이 실내활동과 대중 속에서의 머무는 일에 비해 안전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코로나19, 우한서 작년 8월 발병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르면 지난해 8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병했을 것이라는 새 정황이 나왔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우한의 병원 주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인터넷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8일(현지시간)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디지털 메디신에 이런 내용의 논문을 기고했다. 2018년 8월부터 우한 병원 5곳에 주차된 차량이 1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2월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예로 2018년 10월과 2019년 9월 찍힌 우한 통지의학원 주차장 위성사진을 비교하면 각각 112대, 214대로 차이가 있었다. 텐여우(天佑) 병원 주차장도 2018년 10월과 2019년 10월 각각 171대, 285대로 달랐다.

연구를 이끈 존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병원 주차장이 붐비는 것은 당시 병원이 얼마나 바빴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늦여름~가을 우한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근거로 몇 년 전 중남미 지역 병원이 독감 철에 매우 바빠졌음을 들었다. 그는 "병원 주차장을 보기만 해도 독감 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연구진은 몇 가지 정황을 더 추가했다. 우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 시점에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감기'와 '설사' 검색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표적인 증상이다.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우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많은 수가 설사 증세를 보였다"며 "바이두에서 설사를 검색하는 사람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데 이터는 주목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훨씬 이전에 우한에서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계보기구(WHO)에 보고한 첫 번째 코로나19 공식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보다 훨씬 앞서 전염병이 유행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한 셈이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99. 하도원(1876-?)

하도원(河道源)은 1876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에서 모교회의 장로였다. 29세의 하도원은 가족을 한국에 남겨두고 1915년 1월 15일 중국 상해에서 19세의 이반석과 31세의 전영환과 그의 네 살 된 아들 전군영 등 3명과 함께 시베리아에 승선하였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그달 25일에 샌프란시스코를 통하여 도미하였고 곧바로 리버사이드로 이주했다.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영수

1915년 리버사이드에는 노동주선인 박충섭을 통해 32명의 한인인 농업노동자로 활동했고, 당시 국민회 리버사이드지방회 회장은 이학현이었다. 리버사이드지방회는 매월 통상회를 모일 때마다 개회하기 10분 전에 지방 학무원이 회원들에게 북미총회 자기규정을 가르쳤다. 리버사이드 지방회관주소는 Pachappa Ave, 1532 번지였다. 그런데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주소는 같은 길의 1158번지였다.

1915년 3월 31일 미국북장로교 가주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위한 내지선교사였고 북가주 오클랜드에 거주하던 John H. Laughlin 목사와 가주 한인장로교회 순회목사인 민찬호가 리버사이드한인장로교회를 방문했다. 이날 본 교회는 정성을 다하여 성대한 환영회를 마련하였다. 민찬호 목사가 북음을 전하였고 두 번의 독창이 있었는데 라프린 목사가 중국 찬송을 불렀고 본 교회 여학생 송마티는 영어 찬송을 불렀다.

위의 라프린 목사와 민찬호 목사가 방문한 다음 달인 1915년 4월 20일 경에 리버사이드한인장로교회 영수였던 문영운이 리버사이드 인근 윌랜드로 이주하여 그를 대신하여 하도원이 본 교회 교역자(영수)로 취임했다. 교회 집사로 최재덕을 선출하였으며 교회 경비를 위하여 30달러를 헌금했다.

리버사이드한인장로교회 영수가 된 그달에 하도원은 주일마다 예배당

에서 노동한 후 여가에 도덕을 숭상하기 위하여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15명 정도였다. 한편 문영운의 뒤를 이은 지방회 서기 정지영의 부인 이반석이 주일학교를 개설하고 어린이 10여 명을 가르쳤다. 이반석은 하도원이 도미할 때 동행했던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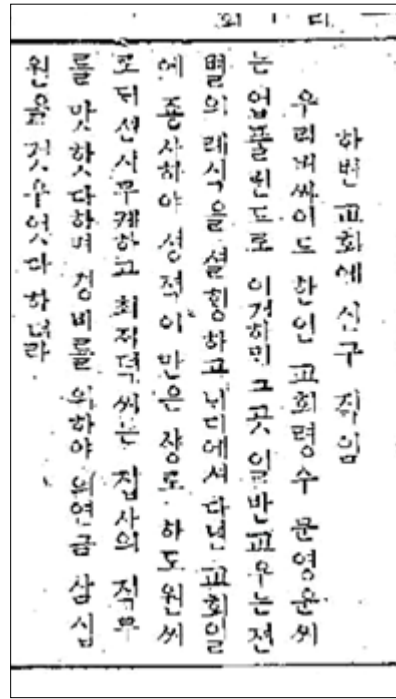
1915년 4월 29일에 김인수의 부인의 모친이 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고 하였으니 하도원의 심방이 있었을 것이다. 슬픈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해 7월에는 노동주선인 박충섭이 결혼했다. 그달 28일에 상향한인감리교회에서 한국에서 온 이정경과 결혼식을 한 직후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8월 1일에 리버사이드로 와서 그달 7일에 한인 동포와 외국 빈객을 초청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하였으니 하도원이 이 잔치의 기도순서를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1915년 도미, 리버사이드한인장로교회 영수로 10개월 사역 다뉴바로 이주 독립금 후원, 1920년 귀국 평양장신대 졸업

이 기념, 이학준, 정기현, 이 초, 유진오, 명일선, 김용선, 김병숙, 김진행, 안영열, 김중학, 김병학, 문병희, 이월념, 한승근, 정성희, 이용근, 고응도, 김봉길, 허 학 등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본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이들 외에도 외국인이 낸 건축헌금이 508달러 70센트였다. 구 예배당 방입금이 11달러 50센트 그리고 재목 방입금이 11달러 50센트로 총 건축 수입이 770달러 20센트였고, 총 건축 지출은 총 786달러 8센트로 부족액이 15달러 88센트에 불과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회도 삼자운동에 총신했음을 본다. 그해 9월 다뉴바로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이전보다 많아 무려 370여 명이 있었다. 이전에는 흑독한 더위로 매년 한 명의 한인이 사망했는데 이 해에는 사망자가 없었다고 한다. 370여 명의 한인이 다뉴바로 이주하였으

로 다뉴바한인장로교회 교인수가 이와 비례하여 많았음을 알게 된다. 1918년에는 하도원이 가주 북쪽 와오밍 섬퍼리로 이주하였다. 그해 7월에 그는 여러 명과 함께 섬퍼리로 지방회 설립 청원을 하였고, 다음 달에 본 지방회 학무로 선임되었다. 이

리버사이드한인장로교회 신구 임원 교체 (신한민보 1915년 4월 22일)



리버사이드한인장로교회 신구 임원 교체 (신한민보 1915년 4월 22일)

곳에서 그가 교회를 시작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해 12월에 맨티카한인감리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5달러를 헌금했다. 본 교회에서 그가 2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였다.

1918년 12월 12일에 신한민보에

관에서 서로 만나 다시 이를 위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서로 옳다고 하는 내정은 일직이 본 사람이 없으니 누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러나 절지도 않은 노인들이 항상 이렇게 소소스럽게 힘이 실로 상사롭지 못한 일인 고로 동포 4, 5인이 위하여 시비를 밝히는데 전 노인이 조목조목 증거 하는 끝에 이 노인이 이 굴하여 다시 할 말이 없이 되었더라. 이때 이 노인은 자기의 사정에 몇 가지 조건을 첨부하여 사화하기를 "가내 당신을 불쌍히 여겨 이전에도 몇 십원(달러)씩 준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봉준이가 내 돈을 상게도 갚을 것이 있다고 하니 나의 명예상에 손상이 적지 아니한 것이라. 형이 만일 사화하기를 원하면 나의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겠소?" 하며 이 노인이 곧 불복하여 사화 하였는데, 그 요구조건은 이 아래와 같으니 (1)내가 당신의 돈을 다 감보한 것을 증거할 일 (2)이 사실을 우리 신문에 게재할 일 (3)3개월 동안 게재하여 우리 미주 동포들이 다 알게 할 일 (4)이후에 또 돈을 달라하지 못할 일 (5)이를 다 불복하면 나는 당신의 3개월 식비를 감하 줄 일(광고비는 내가 낼 일)

사화인: 이창서, 전봉준
증거인: 하도원, 한광수

하도원은 1919년에 나라 사랑에 함께 했다. 그는 그해 2월에 세계 제1차 대전을 맞은 미주 한인의 금력 찬조금을 동참했고, 그해 3월과 그해 5월에 독립의연금에 기부했으며, 그해 6월에 의무금을 냈고, 그해 9월에 적십자회 헌금 등을 내면서 나라 사랑에 함께 했다.

귀국

수년간 미주에서 거주하던 다뉴바의 하도원은 1920년 10월 16일 춘양환 선편으로 귀국했다. 그는 그해 12월 성탄절 경에 1주간 동안 평양 서면 남형제사면 천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이 기간 난치병을 고치는 일까지 있었고 500여 명 출석교인이 1천 명이 매주 출석하였다고 한다. 하도원은 조선장로교 강서노회의 추천으로 평양장로교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4명의 여전도사와 함께 전도하였다. 그런데 1921년 2월에 강서군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는데 그 까닭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1924년 12월 19일에 평양 서문 예배당에서 열린 평양신학교 제18회 졸업식에 참여하였고, 그는 26명의 졸업생 중 한 명이였다. 그 후의 그의 행적을 쉽게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오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81-0691, Fax: (562)681-068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인관(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g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회선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수익채널 장소)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6:00(토) Tel: (714)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부분)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15, 11:30 유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전파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오후 4:30(본당) 사역구역: 1. 과천시사역 2. 과천청도 사역구역 사역: 1. 목회사역 2. 가정사역 3. 상담사역 4. 내선교회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www.grace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채기도전: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6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l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예배: 오전 9:45(10월)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강화' 일터에서 오전 9:30 성령대령회: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3)



4.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의 출간

“설교의 기술”은 1592년 라틴어로 처음 출판되었으며, “목사의 소명”은 1606년에 발간되었다. 이 두 권의 책은 윌리엄 퍼킨스의 23권 3권의 전집으로 된 수많은 책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책에 속한다. 17세기 청교도 설교학의 교과서이자 당대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책은 그가 34세가 되던 1592년 라틴어로 처음 출판되었고, 그가 죽은 후 4년 뒤인 1606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영국 종교 개혁 이후 설교학에 있어 가장

본서의 배경이 되는 16-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시대(1550-1700)는 교회사에서 목사다운 목사가 많이 배출된 시대로, 설교다운 설교가 넘쳐나던 시대다. 이 시대에 100여 명의 기라성 같은 탁월한 설교자들이 배출되어 영국의 수많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성경적으로 변화시켰다.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국가의 모습을 교회사의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드러낸 청교도 목사들은 자신의 신본과 소명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청교도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은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

한다. 설교 운동은 엘리자베스가 1560년대 초반에 시행한 ‘종교법령’(Settlement of Religion)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개혁주의적 말씀 설교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한 방식이었다. 이런 운동은 엘리자베스의 이복동생 에드워드 6세(Edwards VI)의 재위 중에 나온 ‘설교집’(homilies)을 단순히 읽는 것만 가지고 살아있는 설교를 완전히 대체해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당시에 국교회 기도서의 주된 저자인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대부분을 쓴 이 ‘설교집’은 설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설교문이었다. 그 이유는 크랜머를 비롯한 존 레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존 후퍼 등 초기의 영국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중엽의 전반적인 설교 수준을 매우 형편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 설교집의 저자 자신들도 이것을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퍼킨스가 개혁주의적 설교 같은 주제를 말하면서 이를 ‘prophesying’이라 표현한 것은 권력의 미움을 살만한 위험스런 일이었다.

예정론부터 가정 이끌어가는 법까지 광범위한 주제 다뤄 설교자와 교재 부족, 개혁과 설교법 제공 목적으로 저술

중요한 책으로 손꼽힌다.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책의 이론과 구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설교와 설교자”(Preaching & Preacher)를 저술할 수 있었다.

원래 케임브리지의 그레이트세인트 앤드루스교회에서 시민과 학생들도 이루어진 청중에게 설교와 강의로 전해진 이 논문들은 그가 직접 집필한 글과 강의노트에서 나온 내용, 사후 유고로 출판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584년에서 1602년까지 18년간의 사역기간을 종합한 이 출판된 논문들은 예정론에서부터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그의 놀라우리만큼 다양한 관심의 폭을 보여주고 있다.

5. 저술 동기

해준다. 청교도 시대를 크게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여왕 시대(1558-1603)의 초기 청교도와 17세기 스튜어트 왕조(1603-1662)의 후기 청교도로 구분해본다면 44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퍼킨스(1558-1602)는 엘리자베스여왕 통치와 거의 일치하는 시대를 살았다. 청교도 1세대의 핵심 인물에 속하는 퍼킨스는 당대 ‘서유럽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였으며, 영국 청교도 설교자의 아버지요, 실천적인 영국 청교도신학의 원조요, 산더미 같은 청교도 문헌을 쏟아낸 청교도 저술가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그가 이 책을 쓸 당시 16세기 중반의 영국에는 성직자들은 많았으나 설교자는 없었다. 대부분의 성직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설교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교회 당국이 1547년에 출판한 12개의 설교 가

였다. 6. ‘설교(prophesying)’라는 의미

퍼킨스가 그 시대 설교에 대한 전반적인 무지함을 크게 개탄하며 “예언”(prophesying)이라는 이름으로 본서를 저술하였는데, 이는 분명 엘리자베스 1세의 정책을 겨냥한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 ‘설교’로 번역된 단어인 ‘Prophesying’이란 말은 깊이 쓴 설교,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동시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설교를 가리키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표현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와 더불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함께 포함되었기에 퍼킨스는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로 ‘예언’이라는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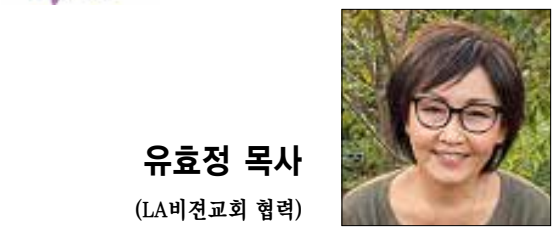
현을 사용한다.

설교 운동은 엘리자베스가 1560년대 초반에 시행한 ‘종교법령’(Settlement of Religion)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개혁주의적 말씀 설교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한 방식이었다. 이런 운동은 엘리자베스의 이복동생 에드워드 6세(Edwards VI)의 재위 중에 나온 ‘설교집’(homilies)을 단순히 읽는 것만 가지고 살아있는 설교를 완전히 대체해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당시에 국교회 기도서의 주된 저자인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대부분을 쓴 이 ‘설교집’은 설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설교문이었다. 그 이유는 크랜머를 비롯한 존 레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존 후퍼 등 초기의 영국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중엽의 전반적인 설교 수준을 매우 형편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 설교집의 저자 자신들도 이것을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다. 퍼킨스가 개혁주의적 설교 같은 주제를 말하면서 이를 ‘prophesying’이라 표현한 것은 권력의 미움을 살만한 위험스런 일이었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외로움의 극복

질문)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점으로 뼈꺼거리는 결혼생활을 하다가 결국 아내는 떠나고 혼자 살게 된 지 10년이 다가옵니다. 그 노력력 재정의 위기는 지나갔음에도 재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을 알게 되고 뼈 속 깊이 스미는 외로움과 하루하루 싸우며 지내는 형편입니다. 무슨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 외로움이란 타인으로부터 격리되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슬프고 쓸쓸하고 처량한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한 분쟁의 결혼생활이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막상 떠나고 나면 허전함과 외로움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혼 후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으로서는 상대편 가족이나 친구와 멀어지면서 오는 거절감과 무가치하다는 생각, 또 부부중심의 사회에서 느껴지는 고립감, 이에 더해 ‘너는 혼자’라고 속삭이는 영적공격에 의한 것 등이 있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굳이 분류하자면 정서적인 외로움, 영적 외로움, 육체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정서적인 외로움은 스스로의 틀에 갇힌 외로움 속에 다른 사람을 멀리 하고자 하는 데서 올 것이고, 영적 외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듯한 느낌에서, 마지막으로 육체적 외로움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에서 올 것입니다. 다소러지지 않은 외로움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우울증, 혹은 돌발적인 남녀관계의 혼란한 삶, 하나님과의 단절감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부터 탈피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면, ‘외로워하기’와 ‘홀로서기’가 있을 겁니다. 외로워하기란 처한 상황에 대해 신세 한탄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잠기는 것이며, 홀로서기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긍정적 생각으로 감사조건 찾으면 전화위복 기회

니다. 독신의 성직자로 살았던 나우엔 (Nouwen, Henri)은 홀로 사는 것에 대한 보석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외로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귀한 선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외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의 허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달콤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으로 가득 할 수가 있다.’ 외로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생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뢰할 만한 동성 친구와 애기를 나누거나 안전한 공동체 혹은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친교 하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밖에 가지고 있는 재능개발을 위해 강의를 듣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대로 돕는 등의 보람 있고 건설적인 일로 스스로를 바쁘게 한다면 어느덧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외로워 할 시간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나친 외로움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우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돌이켜보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후, 그를 죽이겠노라 달려오는 이세벨을 피해 산속에 숨어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오직 나만 남아 있거늘’ 하며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노라고 위로하십니다(왕상19:18). 이 세상에 혼자 남은 듯한 처절한 상황의 외로움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게(19:5) 하셨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오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사23:4).

kdrministry@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4>뉴욕몽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46-4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6: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평안찬양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00(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윈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구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선교사</h4> <p>선교사: 임함권 선교사 1. 멕시코 법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ot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h4>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0 ■ N.Y.: Tel: (718)886-40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언제 이 재난이 끝날까?

어떤 집사님이 말하기를 이 COVID19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게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치르게 한 시험과 같다고 말하였다. 내가 생각했던 바를 적절하게 표현해주어서 매우 공감하였다. 어느 날 지독한 변종 바이러스 한 놈이 생기더니, 그 놈은 순식간에 수많은 바이러스를 복제하여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 바이러스들은 사람의 몸을 매개체로 잘 발달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온 세계는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들을 발생시켰다. 각 국가들은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판단과 방법들로 그 바이러스들과 대처하는 시험을 치렀다. 이 COVID19 시험을 치른 각 나라들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들을 줄 수 있을까? 중국은 비록 COVID19의 종식에는 상당히 성공했지만 그동안 사스나 메르스 등의 사건들을 교훈으로 삼고 야생동물의 식용습관을 적극적으로 금지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인리히의 법칙(1:29:300의 법칙)처럼 중국은 그동안 야생동물 습식으로 수많은 작은 사고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십 번 이상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

을 것임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무서운 COVID19을 전 세계에 선물하였다. 그들의 지혜롭지 못함이 온 세상에 산출 불가능한 손실과 희생을 불러왔다. 그들은 영원토록 이 비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COVID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계올림픽 개최를 공공연하게 장담하며 감염 사실들을 숨겼고 감염자들은 자가 격리하며 버려두었다.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제적 손실 때문에 결국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속출시켰다.

어떤 나라는 온 국민을 바이러스에게 노출되게 두었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될 단체면역의 강화를 기대했지만 목표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갔다. 그리고 어떤 국가는 경제력과 의료능력의 미비함으로 말미암아 자가 격리와 자연적 치유 외에는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여서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손놓고 지켜보는 안타까운 나라들도 많다. 한국은 감염자가 발생하자 감염자와 감염 동선을 파악해서 전방위적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였고 재빠르게 검사 도구를 도입하고 검사 방식들을 창의적으로 구축하여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과 의학이 세계 최고로 발달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과 대담한 국민성이 바이러스 대처를 안이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COVID19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 바이러스는 미국 독감

과 비교해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말들이 공공연하게 입에 오르내렸고, 그 후의 행보에서도 감염예방에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루에 열 명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업체들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였지만 대형마켓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없이 붐비고 있다. 여름이 가까워오자 유흥지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즐기기에 정신이 없다. 언제 이 재난이 끝날지 심히 근심스럽다. 자신감과 용맹함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때로는 넘치는 자신감과 불굴의 용맹성이 싸움을 망치기도 한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고 하였다. 자신감과 용맹성은 자주 지혜와 신중함을 배척하기도 한다. 이 세상은 결코 살아가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감으로 우뚝 서서 머리를 높여 듣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낮추어야

할 때가 더 많다. 이 재난은 각 나라가 치르는 시험일뿐만 아니라 각 교회와 각 개인이 치르는 시험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인내와 지혜와 믿음으로 잘 치러야 할 것이다. 성도들은 영드려서(신9:18), 회개하며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하며(겔18:30), 재난과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왕상8:37,38).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주시는 것이다(민6:25).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COVID19을 이겨낼 방법은 요원해 보인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조심스럽게 거러두기 지침을 지킬 것인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무서운 재난이 닥쳐야 두려운 마음으로 영드려 기도할 것인가? 이토록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는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언제 어떻게 이 재난이 종식될까? 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dik0184@yahoo.com

투고/칼럼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절제 그리고 성령

양민석 목사 (뉴욕교회협의회 회장)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및 홍콩 사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악화되어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46세)의 죽음으로 더욱 불안한 정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지 플로이드를 죽게 한 데릭 마이클 쇼빈(Derek Michael Chauvin, 43세)의 과잉진압은 인종차별이란 이슈를 안고 시위를 일으켰으며, 이것이 과격시위로 퍼져가면서 더욱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잉, 과격은 언제나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발단이 되며 문제를 일으킬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과잉진압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의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미 연방법이 공무원에게 주는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이 경찰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임을 꼬집어왔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텍스트 “Clearly established law standard(명백히 정립된 법 기준)” 즉 “이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없으므로 명백하게 정립되지 않음”이란 문구는, 과잉진압의 처벌을 빠져나갈 빌미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면책특권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경찰들은 공권력 불복종, 자기방어라는 명목으로 과잉진압을 너무나 쉽게 실행해왔던 것이요, 1992년 LA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로드 니킹 사건은 그 법의 혜택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찰들이 다 과잉진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찰의 입장에서의 자기방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번 플로이드 사건처럼 수갑을 채우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무릎으로 목을 조르는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잉진압의 뒷면에 법적인 보호가 있다면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과제는 ‘법을 고친다고 해서 악의 뿌리가 뽑힐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금번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백인경찰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흑인차별의 감정, 자기 말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분노의 감정, “숨을 쉴 수가 없어요(I can't breathe)”라고 절규하는 소리에도 귀를 막은 채, 계속 목을 짓누르고 있는 인간의 잔인성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 개정의 문제만이 아닌 인간본연의 죄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실현해가는 데 부름 받은 사람들은 죄성을 넘어설 절제의 마음이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 없는 정의는 정의라는 미명아래 또 다른 불의와 악을 낳는 모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위대 역시 정의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정의를 가정한 폭력이나 약탈 같은 행위들은 절제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쌓여있던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감정도 일부 거론되고 있는 안티파들이 추구하는 무정부상태와 같은 의도성도 절제되어야 합니다. 금번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두고 진정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적 시위로 Voice를 더욱 높여야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절제, 집단적인 절제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절제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자리잡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줍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부패성을 지니고 있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찌지 못하는 통제 불능의 힘이 있어 사고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격적이며, 선한 마음으로 변화(transformation)를 일으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제 뿐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약한 자, 소외된 자,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에 더욱 예민한 귀를 갖게 하시라는 분입니다. 만약 경찰관 쇼빈에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는 말이 예민하게 귀에 와 닿았고 가슴을 울렸더라면, 그는 무릎으로 더 이상 플로이드의 목을 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란다”라는 성령의 음성 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더라면, 정의를 가장한 인종차별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을 것이요, 법 집행 앞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 우리는 성령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도록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금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와 정치지도자들은 과잉을 일으키는 법집행과 인종차별에 관한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절제와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ilyumc@hotmail.com



후리싱제일교회가 뉴욕교회에 2만 달러를 전달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후리싱제일교회, 뉴욕교회에 2만불 전달

뉴욕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가운데 지난 6월 5일 후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후원금 2만 달러를 교회에 전달했다. 회장 양민석牧사는 지난번 뉴프린티어교회에서 후원한 2만 달러와 이번 2만 달러 등을 포함 총 5만 달러 정도를 회원교회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전 10시30분 후리싱제일교회당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정호 목사는 “코로나사태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당회나 선교회에서는 구제사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마스크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 급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교협 후원도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에 모멘텀이 필요해 지원하게

됐으며 거룩한 부담을 나누기 원한다”고 말했다. 양민석 교협회장은 “현재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두 힘들지만 나눔을 실행하는 모범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정호 목사님께 부탁했다”며 “이번 후원에 감사하며 교계에 자극이 되고 사랑의 마음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달식은 김성찬 감리사(서지방) 기도로 마쳤다. 김성찬 목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며 “후리싱제일교회가 그 믿음을 그대로 실행했다. 이 일로 어려운 교회 돕기 시작의 모멘텀이 되기를 믿는다”며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서 김영식 목사의 식사기도 후 후리싱제일교회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접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뉴욕교회 임원들과 후리싱제일교회 김정호 담임목사와 평신도대표 이배욱장로, 선교위원장 하용화 장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LA한인타운 월세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지플로이드 사망 항의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는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다

LA 한인들 평화시위 동참 남가주 조지플로이드 사망 항의시위 일제히 열려

조지플로이드의 과잉체포로 인한 사망으로 미 전국에서 항의시위가 연일 이어진 가운데 주말인 6일 LA한인들도 경찰폭력과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평화시위에 동참했다. BLM(Black Lives 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을 지지하는 아시안·태평양 주민모임이 주최한 이날 시위는 LA 한인타운 월세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계 등 다양한 인종의 주민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며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개혁을 촉구했고, 한인청년 풍물패는 팽고리와 장구, 북을 울리며 흥을 돋웠다. 한 한인청년은 “우리로 흑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의 일원”이라며 “경

찰폭력에 희생된 조지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흑인 사망사건 항의시위에 대한 한인들의 연대와 지지발언이 이어지자 마이크를 잡은 흑인 여성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여성은 “저는 자라오면서 한인들을 ‘어글리코리안’으로 생각했다.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한 뒤 “하지만 오늘 집회현장에서 한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종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는 한인들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다”며 “한국의 팬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를 기획한 김다나씨(25세)는 “오늘 모임은 아시안들과 히스패닉들이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생명의 존엄성과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고 10여 일 전 계획했고 5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저희 계획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날 집회는 한인인 흑인, 히스패닉 등 집회 참가자들은 시위 중간에 무릎 꿇고 9분 가까이 침묵한 채 플로이드를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46초간 목이 짓눌려 숨진 플로이드의 명복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이날 시위와 집회는 오전 8시 LA 시청을 시작으로 늦게는 오후 5시 부에나파크 라말파 애비뉴와 비치 블러바드가 만나는 곳에서 개최되는 촛불시위까지 다양하게 펼쳐졌다. LA 카운티의 경우 오전 10시 USC 흑인동문회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지지 행진을 가졌다. 행사 출발지는 USC 빌리지 인근 제퍼슨 블러바드와 맥클린톡 애비뉴가 만나는 곳이다. 한편 4일에는 LADa운타운과 한인타운 등을 행진하며 항의시위가 열렸다. 4일 시위와 6일 집회는 시위를 병행한 약탈행위가 벌어질 것이 우려됐지만 시종일관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알기쉬운 IT 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IT 시대의 기본은 클라우드 사용

저는 지난 주 한국에 도착해서 홀로 자기격려 중입니다. 정말 집 밖으로는 짝짝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방침에 적극 순응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는 것이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하루종일 운동을 하지 못하니 그게 걱정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불이 꺼졌나 싶으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미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지난 주일부터 대면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성도들 모두 극히 조심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들 중 아직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난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입니다.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Word를 사용하는 일일 텐데, 이를 위해 M/S Word나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 다른 것 사용을 극히 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을 빨리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내가 사용하는 것은 좋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쁘다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면 구글 맵을 사용하는 사람과 Waze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말하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번거로움은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하나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배우는데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드프로세서도 마찬가지로 아래 한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Word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막고, 또 그 사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자신의 것만 좋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큰 장점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된 내용의 분실 우려가 없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한 사람들은 아주 여러 번 데이터(Data) 분실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줍니다. 아직 클라우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저장수단입니다.

△어디서든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인터넷은 어디서든 됩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의 최대 장점은 타 클라우드에서는 저장장소만 제공되는데 비해 M/S Office와 같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Docs, Spreadsheet, Presentation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제 경우 모든 원고는 이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Google Docs(구글문서)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또 원고를 쓸 때 많은 경우 말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원고를 아래 한글이나 MS-Word를 이용하여 최종 완성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글을 쓴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스마트폰에 말로 글을 쓰는 것은 정말 편리합니다.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열고 +를 누른 후 문서를 선택하여 글을 써보십시오. 아이폰의 경우 문서의 제목을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폰은 나중에 내가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자동으로 저장되니 저장에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컴퓨터에서 불러내 수정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IT 시대의 기본은 클라우드 사용입니다. 이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시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http://pf.kakao.com/_FmSzx/49581334
(909)971-7720, sjyoon7231@gmail.com



갈보리민음교회 예배에서 강진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교회 현장예배 재개

개빈 뉴섬 거주 주지사의 현장예배 재개방침에 따라 지난 주부터 남가주교회들의 현장예배가 시작됐다.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는 6월 1일부터 새벽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으며 7일 주일은 갈보리민음교회(강진웅 목사),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 갯스패밀리교회(유대호 목사), 나성한미교회(신용환 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왕상운 목사), 뉴버리팍브릿지교회(김재호 목사), 디사이플교회(고현종 목사), 오렌지중앙교회(유원선 목사), 올림픽장로교회(정장수 목사),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 등이 현장예배를 실시했다.

갈보리민음교회 주일예배에서 강진웅 목사는 '성전에 올

라가던 때를 기억하고'(시 42: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영혼의 목마름은 첫째,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 마음이 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해결된다. 둘째,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다. 셋째, 영혼이 낙망치 않으면 성전에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장차 우리에게 탄탄대로 열어주시고 생명의 강물을 실컷 마시게 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웅 목사는 "현장예배 드리는 데 여러 제약이 있지만 성도들과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기쁨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격스러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 마스크 5,000장을 손질하며 포장하고 있다. 원내는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김현인 목사.

마스크 5천장 선교지와 이웃에 전달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19주년 감사예배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설립 19주년 감사예배가 6월 7일 오전 11시 교역자와 당회원 등 소수가 모인 가운데 실시간 동영상이벤트로 드러졌다.

김현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순덕수 장로 기도, 김민규 전도사 특별 찬송에 이어 김현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현인 목사는 '구주를 만난 사람들'(요4:27-42) 제목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권세에서 해방시켜주신 구세주를 만났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데 있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복된 사람들"이라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교회와 성도들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남가주든든한교회는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며

의미 있는 일을 계획했다. 지난 23일 교회 중직자 10여명이 모여 한 성도가정에서 후원한 마스크 5,000장을 짚은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함께 포장한 뒤 올해 단기선교 예정지였던 노갈레스 지역과 본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각 선교지와 이웃, 단체에 전달했다.

또한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각 목장 인도자와 김현인 목사는 목장별로 나눠 성도들의 기정을 방문, 6피트 간격을 둔 '문밖심방'을 통해 19주년 기념선물과 마스크를 전달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든든한교회는 2001년 고 김충일 목사가 개척한 뒤 2009년부터 2대 담임으로 김현인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고 김철직 목사 유가족에 온정 이어져
코로나19로 할머니, 아버지 잃고 어머니는 투병중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5월 김철직 목사(사진)와 그의 장모가 소천한 가운데 고인의 딸 하나김 자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할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하나김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인들이 김양을 돕고 싶다는 연문사에 문의가 이어졌다. 그들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개인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논의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며 이메일을 보냈다.

이외에도 "고편드를 진행하고 있다면 지원하고 싶다. 정보를 알려 달라"는 문의가 이어졌다.

교계 게시판

치매가족돌봄 교육 화상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하는 "치매가족 돌봄 교육"이 6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된다.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 협의회와 협력 사업으로 "성격과 행동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 "공감하는 대화: 새로운 이야기 방법"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주제 시리즈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면 6월 22일(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562)977-4580 이메일 somang@somangociety.org

주님세운교회 교회당 이전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가 교회당을 이전했다. 지난 5월 첫 주부터 토랜스에 있는 루터란 교회로 이전한 주님세운교회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리모델링한 새성전, 교육관, 컨퍼런스룸, 식당, 당회장실, 학교 등을 갖추고 있다. 새 주소는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문의: (310) 325-4020

갈보리민음교회 교회당 이전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가 교회당을 이전했다. LA한인타운 임파뉴엘교회에 위치한 갈보리민음교회는 장소를 올림픽장로교회(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로 옮기고 6월 첫째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했다. 따라서 갈보리민음교회 예배는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소예배), 올림픽장로교회 예배는 오전 8시30분(소예배), 11시45분, 오후 2시에 각각 하게 된다.

▲문의: (213) 365-8880

이성주 목사 천국환송예배

이성주 목사(파소로블스한인장로교회, KAPC가주노회장, 사진)



천국환송예배가 5일 오전 11시 열렸다. KAPC가주노회장으로 열린 천국환송예배는 곽덕근 목사(노회서기)가 기도했으며 이준우 목사(밸리한인

커뮤니티교회/KAPC 서기)가 '선한싸움으로 믿을 지키고'(딤후4:6-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성주 목사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개했으며 유가족 이해선 자매가 조사를 하고 이영훈 장로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다. 이날 예배는 이정남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총영사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방문

LA 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지난 6월 1일 최근 LA 한인 이민자들이 당면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약탈과 폭 사태와 관련해 한인회와 교계 등 관련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진유철 목사)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안전대책과 교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성시화 이사장인 최문환 장로와 긴급하게 이뤄진 간담회에는 상임 본부장 이상우 목사와 총무 김시온 목사 등이, 총영사관에서는 구태훈 영사가 참석했다.

구 영사는 1992년 4.29폭동을 기억한다면서 총영사관은 한인 교포들과 사업체 및 한인 이민교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

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무엇보다 각 개인의 안전을 위한 최 대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교포들의 안전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비상사태에 당면할 경우 우선 현 치안시스템의 지원과 도움을 적극 요청하되 총영사관에 즉각 알려주기를 바란다

새로 부임한 박경재 총영사는 부임과 동시 코로나19 및 이번 미주내 플로이드사태에 대한 한인교포의 안전을 위해 상급 본부장 이상우 목사와 총무 김시온 목사 등이, 총영사관에서는 구태훈 영사가 참석했다.

총영사관 긴급 사건사고 24시간 연락처는 (213)700-1147이며 웹페이지 및 Facebook, 소셜미디어에는 각 지역 데모 현황 및 통금시간들이 상세히 업데이트 되고 있다.

신 기부금은 의료비와 장례비, 이사,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양 가족은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오면서 모두가 감염된 안타까운 경우다. 할머니, 아버지가 떠났고 어머니 김은주사 모마저 투병중이다. 남동생과 둘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 김철직 목사는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 소속 선교사로 LA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한의사 출신 선교사로 월드비전 미서부 지부 등에서도 활동했다.

김 목사는 지난 4월초 요양원에서 지내던 장모를 집으로 모시고 함께 지냈다. 열흘 후 노모가 호흡곤란을 나타내 진료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고 김철직 목사와 사모는 예배를 위해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의: skang@kyccia.org(KYCC)

굿네이버스USA, 세계 빈곤아동 돕기 모금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USA(회장 이일하, kr.goodneighbors.us)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WHO의 팬데믹 선언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 저개발 국가를 위한 긴급구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현재 대부분 굿네이버스 해외 사업국 또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내 의료시스템이 열악한 국가와 취약 계층의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 속에서도 위생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에도 진단키트 부족

으로 인해 즉각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이 동제한 명령과 휴교령으로 일차리를 잃게 된 가정들은 당장의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는 COVID-19 In Africa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최소 3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900만명이 극빈층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12억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이 감염되고 330만명이 올해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해외 사업국 지역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긴급 대응하고 있다.

아프리카 차드는 손 세정제, 비누 등으로 구성된 개인위생 키트를 지원하고 가나의 경우는 긴급생계 및 위생 키트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지부는 지역주민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우 학교개학 보류로 인한 TV 교육영상 제작 및 방영을 하고 있다.

▲후원 문의: (877)499-9898, jkim@goodneighbors.us (기사제공: 굿네이버스USA)



하나 김 자매는 현재 고편드를 통해 기부금을 받고 있다. 그는 고편드 사이트(www.gofundme.com/f/the-hannah-and-joseph-kim-family-fund)에 "예상치도 못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보내주

코로나19와 교회 [4]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소규모 모임을 통한 선교적 부름 수행 채택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적은 인원의 모임이 가장 먼저 허용된다. 따라서 소그룹 모임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모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좋은 방법이며 우리는 이를 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한다. 소규모 모임에서는 서로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상호 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모임을 통해 교회 건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예배를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예배가 재개되면 모두 함께 참석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에 흩어져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사역에서 교회 건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단단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여 주변의 성도들이 궁극적인 교회사역을 위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는 견고하며 동시에 유연한 기초를 쌓을 수 있다.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구성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같은 연령대끼리 모임을 함으로써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감염률이 여전히 높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 추가로 보호할 수 있다. 성도들은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서로에게 알릴 수 있고, 모임 내 다른 성도들이 빠른 자기격리를 실행할 수 있다.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 충족 우리에게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만남이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려면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항상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면 감염될 위험이 줄어든다. 교회 전체에 작은 안전장치를 만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더 많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수록 지역 사회에 감염이 존재하는 동안 모두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비슷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우리의 사회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보호 제공 교회의 사역이 재개될 때 적어도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물리적인 거리는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단위로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적 단위이므로 교회에서 개인별로 따로 분리될 필요가 없다.

가족 단위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무증상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다.

마스크 사용자의 비율을 늘리면 모든 사람이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도록 서로 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정에서의 소규

모 모임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감염수준은 여전히 높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광범위한 노력 지원

코로나19가 가까운 시기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교회 활동을 재개한 후에도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와 친구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는 보건(의료) 부서와 감염된 사람들의 접촉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코로나 감염 환자가 교회에 참석했을 때, 당일 모든 참석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교회는 신속하게 감염 환자에게 통보하여 스스로 격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을 지킨다면 다른 성도들이 감염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접촉자들의 연락처 파악 및 추적을 진행할 때는 속도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참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이 앉은 자리를 기록할 것 예배실 및 모임에 좌석과 줄 번호(또는 테이블 번호)를 지정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기록할 것. 이름, 연락처 및 앉은 자리 기록, 각 세대별 한 사람만 등록하면 되지만 그룹의 인원수를 기록해야 함 △최소 3주 동안 기록을 보관할 것 △모임기록을 보관하고 필요 시 연락을 취할 교회 내 담당자를 지정할 것.

다음 단계로 갈 시기 결정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교회 활동 횟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다. 각 교회는 먼저 소속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감염률이 올라가거나 여전히 높으면 현장사역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감염률이 떨어지고 낮아진 상태라면 계획의 1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1단계로 전환하기 전에 최소 3주 동안 코로나19 사례와 사망자가 일관되게 하향 추세를 보여야 바람직하다. 그러나 하향 추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감염률 또한 낮아야 한다. 광범위한 검사 없이는 지역사회의 실제 감염자 수를 알 수 없다. 검사가 증가할 때까지 보고된 사례와 사망자 수를 기반으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락 추세와 낮은 감염률이 지속되면 현장사역을 재개하도록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결론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뿐이지만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 현재 시점에서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역을 언제 재개해야 할지 그리고 안전하게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다. 이러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경적 진리와 이용 가능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단계별 지침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형태의 코로나 유행병은 지나갈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현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분별력과 동정심,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필자주: CT Article by

<교회 활동 재개 후 4단계 계획> 표 2

활동	연령 범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그룹 모임	모든	1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교정 안전, 비손한 연락처 (5인 이하)	15명 이하: 마스크 착용, 교정 안전, 비손한 연락처, 방역대 운영	15명 이하: 마스크 착용, 교정 안전, 비손한 연락처	20명 이하: 방역대 운영
예배					
교구	상당액 이하 기록	50명 이하: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50명 이하: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50명 이하: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50명 이하: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연방	높음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연방/지방	모든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교세	높음				
지역	높음	2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교정 안전, 비손한 연락처	2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교정 안전, 비손한 연락처	2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교정 안전, 비손한 연락처	20명 이하: 마스크 착용, 교정 안전, 비손한 연락처
연방	높음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연방/지방	모든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온라인 전용: 일일 건강평가, 방역대 운영
연방/지역	모든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소규모 모임	모든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소그룹 모임 (5인 이하) 마스크 착용

단계별 오픈 명령에 교회도 지역별 교회별 특성 따라 준비해야 코로나19 끝나도 이전과 동일할 수 없어...모든 분야 변화 예측

Daniel P. Chin의 일부를 발췌, 정리함]

코로나 이후 분야별 전망

1. 사회의 변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왔다.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인 불안감의 지속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 공황, 불안,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대량 해고와 실업이 발생하며, 병에 걸릴 위험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감염을 막기 위해 직장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해고 또는 실업자가 되었다. 경제의 순환이 계속 되어왔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통계를 내기도 전에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이 전염병은 수십 년간 소비자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제학자 Urike Malmendier는 현재의 상황들은 경제학을 초월해서 이 위기에 대한 경험이 매우 감정적이며, 이 강한 감정은 우리의 기억에 아주 강하게 고정되어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흥트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고등학

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2. 개인 사생활 침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전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기업의 테크놀로지 회사가 입법에 영향을 주며, 이들에 의해 국가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개인 사생활의 보호보다는 공중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위치추적을 통해 감염을 경고하거나 감시할 뿐 아니라 사생활 추적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CTV 영상, 전화 및 자동차의 GPS 추적데이터, 신용카드 거래, 이민 입국 정보 및 감염성 질환의 여부로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포함된다.

현재 Google에서는 개인의 감염테스트 또는 치료를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한다. 이는 정부가 전염병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종으로 구분하고, 병으로 구분하고, 개인데이터로 구분하면서 보안의 취약성 위험과, 병원의 측정과 추적, 예측 및 규제와 함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진 것이다. 사회적 위험이 인종으로 구분되고, 소셜미디어가 사회분열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 있다.

3. 제약회사

전염병이 없는 시기에도 생명에 필요한 급성 약물의 85% 이상이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이 집중되었는데, 재래식 전쟁 시와 유사한 군사조달 및 계획모델을 중심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 아직 항체가 없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총과 탱크 등 무기 개발 및 제조 같이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는 개인보호용품을 전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 사용 국방생산 등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다.

4. 의료계

TeleHealth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사가 진료하는 게 더 활발해지고, 주치의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협의아래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의료가 확대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법과 의료보험의 규정이 제정될 것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생명보험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고립되어 있는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 가정폭력의 가능성, 경제적인 어려움 노출, 치매환자에 대한 제한된 치료 등의 염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염려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5. New Technology

인공지능, 블록체인, 챗봇, 얼굴인식, 소독로봇, Telehealth, 드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최신 기술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염에 기여하게 되었다.

6. 새로운 에너지

전염병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석유중심의 전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키며

녹색 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과 더 큰 공급을 수용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 이상 노동력을 통한 에너지보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세계 경제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을 좀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 느려진 제조업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자원개발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항공, 숙박업계

아주 길고 더딘 경기회복으로 국제항공업계 회사의 감소가 예상된다. 코로나 백신과 항생제가 나오기까지는 회복이 힘들며, 또한 많은 비즈니스 여행이 Zoom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대체되어가면, 항공여행이 줄어들 위기에 있다. 2019년에 미국에서 9억 2500만명의 여행자가 항공기를 이용했으나,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G7의 세계 지도자들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대체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며, 좌석, 정비, 체크인 등 모든 과정에 새로운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더 많은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정부가 중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미국으로의 모든 여행을 금지하였고 또 사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숙박시설 하위

부문의 대부분의 수요가 감소하고, 국내여행도 크게 감소하며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업계와, 숙박, 여행업계에 더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국제 여행은 여권뿐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의 백신 확인서가 항공여행이나 숙박시 필요할 수도 있다.

8. 핀테크(Fintech)

이번 코로나로 은행이 소비자 데이터를 "전자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FINTECH 산업이 활성화되며, 이러한 기술은 소비자와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 신용, 개인 대 개인 지불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세계경제가 중단되면서 수천 개의 은행이 닫은 상황에서 필요한 플랫폼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이런 금융 앱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디지털화가 실제로 가속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소매업

배달 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가정 필수품에 대한 많은 거래가 온라인 주문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매장에서는 한 번에 허용되는 쇼핑객 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며 온라인 쇼핑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며, 오히려 판매가 올라감으로 소매업체는 훨씬 더 빠른 회복을 예상하고,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을 따라서 종류를 제한하고 수요가 꾸준한 제품에 집중하게 되어 생산과 유통을 가속화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고추적을 통한 기술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10. 온라인 식품 쇼핑의 자동화

회사 인력 없이도 일주일 수만 건의 온라인 식품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 전염병이 소비자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위기가 끝나도 더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 식품 쇼핑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자동화된 주방으로 식사배달과 농산물 재배와 자동화된 주차장까지 확장 예상되며, 모바일 식품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

11. 농업, 제조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 세탁기, 가구와 같은 내구성 제품의 제조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고, 화장지, 식품 등 가정용 제품과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제조와 소매업이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주 크고, 가금류 도매업체와 고기 도매업체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농부들이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서 식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12. 법조계

IBM Corp, Microsoft Corp, Amazon.com Inc, Facebook Inc 등 전염병 예방이나 치료에 참여한 회사들이나 대학, 연구 기관 등이 협력해서 개발한 치료제나 기술의 로열티, 패턴을 무료로 사용함으로써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합법적으로 허가한다. ZOOM으로 법원의 재판과 Youtube로 재판과정을 볼 수 있게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염병 이후에도 밀려 있는 재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본다.

13. 스포츠, 영화 및 대중문화

현재 겪고 있는 대부분의 new normal(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이 코비드 사태가 끝난 뒤에도 적어도 new normal로 자리 잡는데 몇 달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며, (14면으로 계속)

교역자 모임 재개·취소 사이 '장고'

예장합동·기침 행사 앞두고 연기 혹은 진행여부 미뤄

최근 정국 예배가 아니라 교인이나 목회자가 모이는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각 교단도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초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뒤 교단들은 미뤄왔던 종교 모임을 재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농어촌부는 2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오는 9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열기로 했던 농어촌 교역자 부부수양회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수양회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일정과 장소를 바꿔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체여행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기를 결정했다.

농어촌부 홍석환 장로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농어촌 교역자 수련회는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농어촌 지역에서 어려움을 딛고 사역하는 목회자와 사모를 위로하는 의미 있는 사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 움츠러든 농어촌 교역자들에게

참가비를 전액 지원하고 힘이 돼주고자 준비했는데 연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오는 18일 총회 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논의를 한 뒤 농어촌부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조율할 계획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도 오는 25~26일 대전에서 교역자복지 지원관으로 개최하는 원로목사 위문회를 두고 고민 중이다. 기침은 매년 원로목사 부부를 초청해 1박 2일간 행사를 갖는데 올해는 원로목사 부부동반으로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일엽 기침 총무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오는 13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려던 제47회 전국 초중고 찬양경연대회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했다. 찬양경연대회에는 전국 교회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수천 명이 모일 예정이었다.

'복음통일' 21일간 릴레이 기도

평화한국 주최, 국내외 70여개 교회·단체 협력

한반도 복음 통일,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제14회 세이레평화기도회가 오는 5일 서울 한국중앙교회에서 시작된다. 사단법인 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전국 70여개 교회와 단체, 해외 6개 교회와 협력하는 순회 기도 운동으로 25일 마무리된다. 기도의 주제는 '요단에 들어서라'(수3:8), 소재목은 '평화: 용서(한이레), 화해(두이레), 사랑(세이레)'이다.

기도회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21일간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취지로 2007년 시작한 한국교회 연합 기도운동이다. 평화한국은 매년 2만여권의 기도 책자를 발간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책자에는 57명 사역자와 전문가, 기관 담당자가 집필로 참여했다.

허문영 대표는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한국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푸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며 "주제 말씀처럼 요단에 들어선다는 것은 기도회를 통해 회개 기도를 하고 용서와 화해, 성결함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도회 기간 중 두 차례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13일 서울 나섬교회에서 다문화가정 및

장애 청소년을 위해 엔젤 키트 등의 공연이 열린다. 20일 서울 크로스로드에선 '통일민을 통해 배우는 작은 통일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2020 청소년 통일비전 아카데미'가 이어진다. 25일 강원도 철원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와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가 예정돼 있다.

14번째 펼친 기도운동의 열매도 적지 않다. 허 대표는 "평화한국과 연결된 국내외 640여명 기도자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을 위해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2017년 미국인 오토 윌버 형제와 캐나다교포 임현수 목사, 이듬해엔 미국교포 김동철 김상덕 김모세 선교사가 석방됐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의 김정숙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를 위해 계속 기도한다고 했다.

김병수 문정제일교회 목사는 "통일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공의와 정의, 평화와 용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통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상도 사암교회 목사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도 운동에 한마음으로 연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양적성장 한계 직시, 패러다임 전환해야"

예장통합, 교회성장포럼 열고 진단

우리 시대, 교회 성장은 무어의 미일기. 단순히 교인 숫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내적 성숙과 더불어 선교론이 교회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의 한계를 직시하고 질적 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총회장립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4회기 교회성장포럼'을 열었다. 예장통합이 지난 5년간 동반 균형 지속가능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끌어 온 교회성장운동을 회고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교단 지도부와 더불어 다른 교단 신학대의 선교학 전공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교회의 나아갈 바를 모색했다.

포럼에선 위기의 징후를 볼 수 있는 숫자들이 제시됐다. 예장통합의 경우 2015년 통계 기준으로 교인 수 100명 이하 교회는 5563개

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지만, 전체 교인은 20만9339명으로 전체 교인 수의 7.5%에 그쳤다. 반면 교인 수 500명 이상 출석 교회는 전체의 7.4%인 655개였지만, 이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207만 7134명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이는 교단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현상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2018년 기준 자립 대상(미자립) 교회의 수는 2920개로 전체 6240개의 46.7%에 이르는데, 이는 2009년 조사 때보다 6.7% 포인트 늘어났다. 예장합동의 2018년 보고서에도 연간 예산 3500만원 이하인 교회가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병배 협성대 교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운동은 결국 대형교회 중심의 양극화와 젊은이들을 가져왔다"면서 "교회 성장을 양적 성장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편파적이며 건강한 교회를 위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장·온라인 예배 놓고 다시 '숙고'

수도권 곳곳 확진자 급증속 일부선 온라인 재전환

최근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모이는 예배로 전환했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다. 예배 방식을 자주 바꾸면서 매번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소속 교단이나 지역교회연합회가 예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종로 A교회 B목사는 2일 "모이는 예배로 전환한 뒤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주 모이고 있지만 연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불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하지만 온라인예배로 돌아가자는 말은 목사나 장로들 모두 쉽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단이나 지역의 교회연합회가 분명한 지침을 내려주면 교회가 결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쿠광 물류센터가 있는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의 경우 회원교회에 온라인예배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가까운 유베이스 콜센터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자 이곳 교회들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부기총은 "온라인예배로 전환해 달라. 부득이 모이는 예배를 드릴 경우 7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이태원 클럽 확진 이후 3차 감염이 우려됐지만, 교인 700여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인천 팔복교회와 온사랑교회의 모범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부천 원미동교회(김승민 목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돌아갔다. 김승민 목사

는 "지난달 25일 쿠광 물류 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많은 직원과 주민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도 줄고 있다. 부천시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했다"면서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려던 지난달 31일부터 다시 온라인예배로 전환했다.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 하늘꿈연동교회(장동학 목사)는 교회 청년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선교단체 간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31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급히 전환했다. 장동학 목사는 "다행히 해당 청년이 음성 판정을 받아 7일부터 철저히 방역을 실시한 뒤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려 한다"면서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당분간 이런 혼란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예배학자들은 예배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고 조언한다.

정장복 한일장신대 명예총장은 "기독교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는 게 우선 과제"라면서 "이 일은 굳이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고 목사와 교인 모두 처한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소규모 모임발 감염 확산에 깊은 우려"

한교총, 방역수칙 준수·모임 자제 요청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2일 대표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소규모 모임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깊은 우려와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확산을 막지 못한 작은 모임들은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 예배회복을 바라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최근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 소모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한국교회의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교회는 한국사회 공적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감염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책임

감으로 그 어떤 시설보다도 철저한 방역에 온 힘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두 주간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모든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의 상황을 살피며, 지역 방역당국과 긴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국 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요청대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따를 것과 지하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은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친밀한 사람들 간에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한국사회의 고난과 함께해 온 한국교회 전통을 다시 한번 상기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인내와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신천지, 교리 변개하며 내부단속 강화

종말론사무소, '인터넷시온선교센터' 수정 영상 공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이 교리 교육시설을 철거하는 상황에서도 교리 변경을 통해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말론사무소(소장 윤재덕)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신천지는 교리 교육시설이자 포교의 거점 역할을 했던 전국 '센터'를 철거하는 중이다.

종말론사무소 측은 "이전처럼 모략을 통해 센터에 사람을 채우는 것은 국내에서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됐다"는 점에 신천지 지도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각 센터장이 센터 임차료 납부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부득이하게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천지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속 전국 전쟁과 관련된 교리를 최근 수정하며 신도들 내부 단속에도 힘쓰고 있다. 신천지는 그동안 천국은 요한계시록 속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이뤄진다는 식의 교리를 주장해왔다.

1차전은 요한계시록 13장 속 '첫 짐막과 용의 무리 짐승' 간의 전쟁을, 2차전은 요한계시록 12장 속 '용의 무리 짐승과 아이와 여러 형제'와 전쟁을 말한다. 최근 신천지가 운영 중인 '인터넷 시온선교센터'를 통해 공개된 교리 교육 영상에 따르면 신천지는 여기에 더해 3차전 '아마겔돈 전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종말론사무소 측은 신천지가 제시한 괄호 속 성경 인용 구절을 막상 찾아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기도/칼럼

속수유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을 돌파했다. 5월 24일 현재 214개국에 5,301,287명이다. 사망자는 340,596명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 4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가까운 미국은 확진자가 160만 명, 사망자가 10만 명에 가깝다. 캐나다는 8만2천의 확진자, 6천2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팬데믹 현상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도 쪼들리고 있다. 염려되는 것은 코로나19사태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다. 코로나의 여파가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다. 제2의 변종코로나도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나 뚜렷한 치료책이 없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을 씻고, 마스크 쓰는 정도이다. 성경에도 전염병이 생기면 2주간 격리시키고 마스크를 쓰게 하는 예가 나온다(레13:4-5, 45). 그때나 지금이나 달란전 게 없다. 바이러스 확진자에게 심혈을 기울여 치료는 하지만 확실한 치료방안이 없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것뿐이다. 치료보다는 전염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손이 묶인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짝잡을 못하고 있다. 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묶인 것 같다. 전 세계가 COVID-19가 휘두르는 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기분이다. 21세기 최고의 문명과 기술을 자랑하는 세상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대책을 찾아야한다. 그것은 기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사건으로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는다. 그때 모세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한다. 염병이 그쳤다. 속수무책으로 있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속수유책(束手有策)이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민16:48).

bible66@gmail.com



백한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기독교 SNS채널 합병 '교회친구 다모여'

최대 채널... '플랫폼 확장, 양질 콘텐츠 제공'

기독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의 합병으로 기독교 최대 규모의 SNS 채널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기독교다모여(대표 박요한 강도사)와 교회친구(대표 은희승)는 오는 8일부터 두 채널을 합병해 '교회친구 다모여'라는 이름으로 공동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두 채널은 모두 주당 1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대형 SNS 채널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기독교다모여는 페이스북에 10만명, 교회친구는 네이버 카페 18만명, 인스타그램 3만명, 페이스북 1만명 등 22만여명의 팔로워가 있다.

박요한 기독교다모여 대표는 "교회들이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부터 사역해온 대형 채널들이 의기투합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합병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고 각자의 노하우를 살려 양질

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합병한 채널은 기독교 콘텐츠 큐레이션을 콘셉트로 매일 2번 이상 양질의 메시지 콘텐츠와 찬양 및 정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앙을 고취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와 크리스천 모두 콘텐츠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하는 등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여러 사역 기관과 문화 사역자의 홍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은희승 교회친구 대표는 "질 높은 온라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는 콘텐츠 지원, 고가의 광고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사역자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회친구 다모여가 기독교 문화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온라인으로도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젠 가정에서 성경학교 할 수 있다

히즈쇼, '바이블 캠프' 콘텐츠 제공

두 명의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기독교 콘텐츠 '히즈쇼'(His Show)를 추천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티브이와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차라리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학교에 몇 달간 보내지 않는데 히즈쇼를 통해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 동화, 찬양 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콘텐츠에 푹 빠진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고백해 깜짝 놀랐다. 다음 달 성경학교도 사실상 취소된 상태인데 홈스쿨링으로 성경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달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이전과 다른 상황에 놓였다. 아이들의 여름방학 기간이 줄었고 전염 위험성 때문에 모임도 자유롭지 못하다. 히즈쇼(대표 백종호)는 최근 여름성경학교 콘텐츠로 '히즈쇼 바이블 캠프'를 출시했다. 캠프 콘셉트로 진행되며 교회와 가정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실내 캠프, 텐트 등을 설치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다. 히즈쇼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용, 가정용, 가정+교회용 세 가지 대안에 따라 콘텐츠를 제시한다.

특히 가정과 교회가 협업하는 성경학교 모델은 주목할 만하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성경학교를 히즈쇼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2시간 진행한 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마무리한다.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6)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6)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의 주역인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은 잉글랜드 동부의 케임브리지셔주 헌팅턴의 청교도이자 젠트리(gentry) 계급의 지주의 집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1628년에 하원의원이 된다. 1640년 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청교도를 지지했다. 크롬웰은 교황주의에 반대했고, 1641년 5월3일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로마가톨릭을 공격하 하려는 사제단과 예수회의 구상에 대해 경계하고 이들의 참된 종교개혁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 힘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황주의와 교황주의자들의 변신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롬웰(Oliver Cromwell)은 1644년에 교황제도와 감독제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이라는 신형군을 소집하여 네이즈비에서 찰스 1세가 이끄는 왕당군을 무찌른다(1648년). 그리고 프레스톤에서 찰스 1세를 돕기 위해서 남쪽으로 진군해가던 스코틀랜드 군대를 쫓아버린다. 1649년 크롬웰은 찰스 1세를 처형한 후 아일랜드를 정복하여 자신에게 예속시키고, 1651년에는 우스터에서 찰스 1세의 아들(찰스 2세)을 무찌른다. 이렇게 영국 내란(Civil War)의 종결 후 의회는 군의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크롬웰은 의회와 중에서도 국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 독립파에 속하여 타협을 구하는 장로파와 대립하다 결국 장로파를 추방한다.

이렇게 크롬웰은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1649년 5월에 잉글랜드의 최초이자 마지막 공

화국인 ‘잉글랜드 연방’을 세웠다. 이후 크롬웰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세 나라를 통치하는 종신 호국경(Lord Protector)의 자리에 오르고 죽을 때까지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다. 이 시기에 그는 귀족과 교회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재분배하고, 중등교육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외적으로는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자메이카를 빼앗고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던 네덜란드를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을 벌여서 제압하고 해상권을 지배하는 업적을 세운다.

그러나 교황제와 감독제를 제외한 참 종교의 자유를 도입하려던 청교도적 노력은 독립과 장로파의 갈등과 내분으로 큰 위기를 맞는다. 결국 호국경 크롬웰의 죽음 이후 1660년 찰스 2세(스튜어트 가문)의 왕정 복고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잉글랜드교회사를 기술한 존 무

의사당(웨스트민스터 궁전) 정문 앞에는 갑옷 차림으로 검과 성서를 들고 있는 크롬웰(Oliver Cromwell)의 동상이 우뚝 서 있다.

7) 웨스트민스터 총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영국 교회사가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17세기는 영국과 영국교회에 있

터 사원으로 영국 교회지도자들이 초청하여 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발의자는 영국 의회였다. 기간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이다. 총 참석자는 151명으로서 121명의 청교도 목사와 30명의 평신도 대표인데 10명은 상원의원, 20명은 하원의



청교도혁명 주역이며 영국의 위인 크롬웰, 부정과 긍정 양면적 평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청교도 신앙과 사상의 모체로 삶의 열매 돼
세계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의 교회사적 유산

어만(John Moorman)은 찰스의 죽음과 크롬웰의 집권에 대해 “전제 왕정은 나빴다. 그러나 군사독재는 더 나빴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지만 청교도혁명의 주역 크롬웰이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 일례로 2002년 BBC에서 영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크롬웰은 영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0인 안에 들어갔다. 지금도 크롬웰 런던의 국회

에서 결정적인 세기였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세기인 17세기 중에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렸던 1640년대가 가장 중대한 시기였다”라고 정의했다. 찰스 1세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1640년경에 이르러서는 영국 내에서 청교도의 영향력이 일취월장(Day trip) 증폭 확장되어 절정의 황금기를 맞는다.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청교도혁명이 진행 중인 1643년도에 교회개혁을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이 국왕 찰스 1세의 제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웨스트민스터

의회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4명의 신학자와 2명의 평신도 대표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총회에는 장로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성공회와 독립파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총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었다.

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총회 의장이며 사회자였던 트위세 박사였다. 그는 철학자 겸 조직신학자였다. 또 라이트 푸트와 콜만 박사는 동양학 학자였고, 가테커(Gataker) 박사는 신약과 고전 헬라어에 정통했다.

그리고 런던을 대표하는 설교자 구지(Gouge), 존 오웬(John Owen),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와 독립파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필립 나이(Philip Nye), 윌리엄 브릿지(William Bridge), 제레미야 바로우(Jeremiah Burroughs), 온건한 입장을 견지한 자들은 레이놀즈, 칼라미, 에로스미스(Arrowsmith) 등이었다. 스코틀랜드의 회원 중에 헨더슨, 길레스피, 루터포드는 보기 드문 학자였다. 이처럼 총회에 영국의 대학자들이 모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약 6년7개월간 무려 1163회 이상의 공식적이고 정규적인 신학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든 이유는 성경에 기초한 교리적 발언을 무제한으로 허락하고, 모든 교리의 최후 채택은 만장일치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철저히 성경에 근거했다. 특히 사도적 가르침과 전통에 따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교회 간의 유기적 상호결속을 강조했다.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권위 있게 들어냈다. 그 결과 영국 교회의 행정 체제와 예배를 로마 천주교회의 잔재로부터 성경적

감과 계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구속,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기적과 인간의 책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교회의 본질과 성령의 역할, 재림과 종말 사상 등이 포함된 역사적, 기념비적인 것이 제정된 것이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조 ‘교회에 대하여’ 5항과 6항(R.C. 스프로울, pp.86-87)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5항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 아래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6항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머리가 되는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의 교황 역시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고 확실하게 비성경적 교회의 수장권 문제를 바로 정리했다.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Papa)에 대한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조는 유럽의 개혁신학과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학이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면, 이 신조는 유럽의 개혁자들인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 베자, 영국의 구 어거스틴 전통을 추구한 사람들과 함께 청교도들이 포함된다. 이 신조는 존 나스의 신조나 하이델베르크 신조 혹은 제 2 헬베티 신조와 비교할 때 질적 양적으로 많이 보완되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의 저자인 개혁주의 신학자 R. C 스프로울(Robert Charles Sproul)은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그 이외의 다른 신앙고백서들과 같은 역사적 신앙고백서도 표현과 위풍과 신학적 정확성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능가하지는 못 한다”고 극찬했다.

(16면으로 계속)

“우울증과 영적 치유” (18)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9. 괴롭히는 영

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신에, 상처를 입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서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마는 이가 많다.

한 채플린의 예배에서 우리가 듣는 음성에 관해 설교하며 마귀의 속임수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기를 전했다. 마귀는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도할 때가 많다. 우리가 이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유도하는 제안을 따라가다가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다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게 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환란보다는 평강을 가져다주신다.

예배가 끝나고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오늘 우리가 하신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였었는데 지금은 크리스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낙담시키려고 쓰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도 참소하는 음성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지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귀가 나의 몸을 공격해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그 남자를 공격하던 마귀가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자, 우리 기도합시다. 당

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와요”라고 말하며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 멈출 수 없이 기침이 나오고 목이 조여 와서 아무런 말도 나오질 않았다. 나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숨을 쉬려고 할때까지 되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방해 받은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마귀가 목사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것 같네요. 어느 때는 마귀가 제 목을 24시간이 넘게 조르기도 했어요. 마귀가 아마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마귀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욱 강해지도록 성경책을 계속 읽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악몽이 없어졌고, 나를 괴롭히던 마귀를 꾸짖고 물리쳤을 때, 그 많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어왔지만,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영적으로 장성하여 그를 대적하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나를 영적인 어린애 취급을 하며 거듭 공격하려 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 이외의 신이나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마귀의 고통에 취약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귀는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사탄이 하는 일에 위협이 되므로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혀서 주님을 섬기

사람들을 겁주는 것일 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실상,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법을 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내가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그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예수님은 강하시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를 주장해야 한다.

마귀는 당신이 회개하고 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들이대며 당신을 칠 수 있다. 당신이 듣는 여러 음성 가운데 마귀의 음성

을 이해하게 도움 것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남자의 얼굴이 밝아지며, “이제 그 음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라 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을 갖고 계신다. 영적 싸움을 해쳐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6:10-20을 읽기를 권한다.

요한은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4:4)라고 썼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벧전 5:6-11).

yonghui.mcdonald@gmail.com

회개하고 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 들이대며 공격
마귀 음성 거부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대적해야

이 강해져서 마귀가 더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번에는 기도를 마칠 수가 있었다. 그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괴롭히는 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이댄다.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리를 보전하고 누워서만 지낼 때는 심한 악몽에 시달렸었다. 마귀가 내 목을 졸라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기도 했었다. 내가

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받아 고통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 지를 익혀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다. 예수님은 당연히 마귀보다 힘이 세신 분이므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구할 수 있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단지

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여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회개를 하고 나면 마귀가 당신같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용서해주실 수 없다 하는 거짓을 속삭일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으므로, 당신이 치유를 얻고 주 안에서 더 강한 믿음을 얻을 것을 믿는다. 이러한 경험은 당신이 영적 세계를 더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0.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최초의 기관인 가정의 질서를 논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한 결과물인 인간, 즉 남녀에 대한 가정창조의 위계질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와 가정의 위계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하급한 동식물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고등한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셨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의 경우, 먼저 자녀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부모에게 권면하셨고(엡6:1-3, 골3:20-21),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종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상전에게 말씀하셨

(1)가정창조의 질서
고린도전서11장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는 여자(남자(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지도권(Headship)에 대한 가정에서의 분명한 남녀에 대한 위계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2)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 받았지만(창2:21-22),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고전

여성상위와 부권상실로 가정의 질서 전도(顛倒)
성경엔 주종, 상하관계에서 하급한 것에 대한 언급 먼저 나와

니다. 가정의 질서가 뒤바뀌고,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상위와 부권(아버지의 권위)상실에 있습니다.

1. 남녀와 주종, 상하에 대한 위계(位階)질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떠한 하급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남자와 동등한 지위로 지음 받았음에는 일고의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가정의 구성상, 그 역할에서는 하나님의 가정창조의 위계질서상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엄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주종관계나 상하관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주종, 상하관계에서 하급한 것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온 후 상급한 것에 대한 언급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습니다(엡6:5-8, 골3:22-25, 4:1, 딤후6:1-2, 벰전2:18). 같은 여성상위와 부권(아버지의 권위)상실에 있습니다.

2. 남녀의 위계질서에 대한 성경적 근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고전14:33) 질서의 하나님(고전14:40)이시므로 가정에서의 남녀에 대한 위계질서를 분명하게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은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해야 하며,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녀의 위계질서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할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7)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남녀의 평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에서의 남녀의 위계질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3)여자는 인류 최초의 범법자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딤후2:14)는 말씀에 비추볼 때 여자는 가정의 문제를 최초로 일으킨 인류 최초의 범법자이므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창3:16)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창조의 위계질서가 바르게 정립될 때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워지며 참된 가정선교가 이루어집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투고/칼럼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미국 인권에 대한 조명

하재식 목사 (사랑한교회)



흑인(African American),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는 2020년 5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Derek Chauvin)에 의해 과잉진압으로 질식사했다. 이 사건의 현장은 휴대폰으로 녹화되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여러 도시들도 시위대에 동조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시위와 폭동은 단순한 사람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인종 차별적인 사건들이 여러 주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져왔다. 단지 이번 사건이 그 기폭제가 된 것 뿐이다. 시위대 모두가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분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분위기에 상승해서 폭력으로 변한 사람들도 섞여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가운데는 경찰차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에 방화함으로써 사건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무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 흑인(African American)의 생각 속에는 폭력이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 혹은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시위대의 타겟은 과거 28년전 LA 흑인폭동처럼 코

리아타운이 아니다. 시위대는 백인들이 사는 베벌리힐스, 헐리우드, 라브레아와 산타모니카 등과 같은 부유한 계층을 향하여 전략적으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위대의 고통과 분노가 엘리트 계층에 직접 닿아 매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가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가 변화되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운동 역사에서 폭력이 성공한 예는 없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비폭력 인권운동이 더 호소력이 있고 더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처럼 폭력과 방화와 약탈은 사회적 불안과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이다.

한편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자 하는 의지가 미 대통령 트럼프와 미국 정부에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시위대 모두를 폭도로 몰아붙이며 강경진압으로 격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선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블랙 아메리칸(흑인)과 소수민족을 강하게 억압함으로써 백인들과 그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도자는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혹은 분노의 감정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결코 시도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모든 직장들이 문을 닫았다가 이제 겨우 다시 문을 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또 다시 문을 닫아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의 입에서 아직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노예 해방을 선포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비폭력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인유역사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국가이며 세계 선교에 지대한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권문제를 통해서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바라는 미국이 태생적으로 정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국가임을 자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국가의 존재이유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존할 책임에 성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동일한 인종편견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지 않는 지 깊이 성찰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강 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한 중에 돌보는 것"이란 말씀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진리이다. 국가도 개인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직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내 삶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편견과 차별이 제거된 삶을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땅에 큰 발자국을 유산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josue56@hanmail.net

코로나19와 교회

(11면에서 계속)

대중이 함께 즐기는 행사 대신 제한적인 인원수용과 새로운 결정들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분야와 조직에 맞는 자세하고 분명한 매뉴얼이 준비되는 동안

박물관이나 전시회나 공연 등은 온라인으로 대체될 것이다.

14. 교육계

코로나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 방법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학교 교육을 받는 Z세대에게는 더 이상 온라인 교육이 새

로운 환경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아이폰, WIFI,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익숙하고 소셜미디어와 함께 성장했기에 현재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많은 대학 강의실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더 이상 부모를 떠난 낯선 환경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의 발달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더 많은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예상이며 이는 국제 유학생들에게는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비자문제로 기다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지 유학생들의 숫자

가 대폭 감소될 것이다.

15. 재택근무

이번 전염병으로 가장 큰 변화는 비효율적이며 부정적이던 재택근무에 대한 견해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출퇴근의 시간을 절

약할 수 있고 점점 재택근무에 적응해가고 있다. 그리고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검토가 되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무실 없이 재택근무에 대한 회의와 업무가 온라인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음호에 계속)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영어로 보는 성경 (68)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Revelation 2: 4-6

4)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5)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repen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6) But you have this in your favor: You hate the practices of the Nicolaitans, which I also hate.

(NIV 1984)

WORD & IDIOM

* hold: 생각하다, 판정하다 * forsaken: forsake(버리다)의 과거완료 * fall: 떨어지다 * repent: 회개하다 * remove: (어떤 곳에서) 옮기다, 치우다, 제거하다 * lampstand: 촛대 * in your favor: 너의 유리함 가운데, 너에게 유리하게 * the Nicolaitans: 니골라당

GRAMMAR

4) Yet I hold ①this against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거슬러 이것을 생각 한다:

You ②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나는 버렸다 너의 처음사랑(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거슬러 이것을 생각한다:

* <Yet>는 2, 3절에서 에베소교회를 칭찬한 내용과 같이 그들이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이며, (<I>이 하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는 ①의 <this>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②의 <have forsaken>와 아래 ③의 <have fallen>는 현재완료시제로 과거의 어느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5)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③have fallen!

기억하라 그 높이를 (그 높이)로부터 네가 떨어졌다! ⇒ 기억하라 네가 떨어진 그 (높은) 곳은! =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잘못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이다.

Repent and do ④the things you did at first.

회개하고 하라 내가 했던 그 일(을) 처음에 ⇒ 회개하고 내가 처음에 했던 그 일을 하라.

If you do not repent, I will come to you

만약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그리고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것(촛대)이 있는 곳으로부터 ⇒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가 있는 장소에서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 ④번의 <the things you did>는 선행사 <the things>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6) But you have ⑥this in your favor:

그러나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너의 유리함 가운데 ⇒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있다:

You hate the practices of the Nicolaitans, ⑥which I also hate

네가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 ⑥번의 <this>가 무엇인지를 (<I> 이하에서 설명한다. (<I> 이후 ⑥번의 <which I also hate>)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여기서 <which>는 <the practices of the Nicolaitans>를 가리키며 <I also hate>의 목적어가 된다. 이처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라 하더라도 생략하지 않는다. * 관계사 앞의 (<I>)는 <그리고> 정도의 의미이다.

STUDY & THOUGH

■ 위 본문은 1장 2, 3절에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한 수고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과 인내, 그리고 부지런했던 에베소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신 내용이다. 교회를 지키는 것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였다. 즉 에베소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지키기는 하였지만 지닌 교리를 삶속에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고 만 것이다.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자임이 드러나야 함을 교훈 받는다.

■ Do I not lose the first passion about the Lord, and simply remain in the knowledge livingstonech@gmail.com (끝)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왕하4:20-21)

늦게 얻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넬 여인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품안에서 죽은 아이를 안고 행한 믿음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하나님

께서는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차분함과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화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왕하4:22-26)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생길 때 큰 일이 생길 때 더욱 차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평안을 줍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평안이니이다”라는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이는 “살롬”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 낮인데도 밤에서 돌아온 남편이 “그렇게 급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냐?”고 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 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급한 상황 속에도 수넬 여인의 모습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합니다. 오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쁜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강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요14:27).

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은 안은지라(왕하4:27-28)

수넬 여인이 왜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까? 엘리사 앞에서 그 발에 엎드려 모든 것을 쏟아놓기 위해서입니다. 수넬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지금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엘리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 자락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만 아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주시길 믿습니다.

목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왕하4:29-31)

엘리사가 자신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아들의 얼굴위에 올려놓으라고 계하시를 시켰는데 수넬 여인이 엘리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결단으로 엘리사가 함께 따라가서 아들을 살려놓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마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한 계하시가 죽은 아들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넬 여인과 같이 기로 작정한 직후부터는 지팡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술방망이가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할 때 기도를 응답해주시길 것입니다.

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왕하4:32-33)

엘리아와 엘리사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대로 이뤄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직 한 가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엘리사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한분께만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왕하4:34-37)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힘을 다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다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위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십니다. 진정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밍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부모 아닌 하나님의 계획 바라본다!

desiringGod.org, 요셉 통해 부모/가족에게 받은 상처 치유 방법 제시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돌봄에 마냥 고마워하지만은 않는다. 자녀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인생의 실패에 대해 말하며 얼마나 자주 부모 탓을 하는지 생각해 보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나 미묘하게 말이다. 우리는 부모의 죄가 자손 3대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출34:6-7).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부모들의 부족한 점과 그들의 양육 방법에서 추적해 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들어왔다.

인생의 경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의식적으로나 무심결에) 부모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가?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들이나 그들이 아직 터득하지 못한 교훈들,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성격 문제들, 당신을 키우면서 했던 실수들, 당신에게 저질렀던 죄들 때문이라고 말이다.

특정한 고통이나 약점의 근원을 생물학적으로 혹은 가정의 내력 등에서 살펴보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desiringGod.org의 책임 편집자인 마셜 시겔(Marshall Segal)은 진정한 치유는 원인을 알아내거나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온다고 말해준다(You Can Forgive Your Parents).

당신은 가족을, 부모를 용서할 믿음이 있는가(엡4:32)?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롬12:19)? 지금 당장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선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롬8:28)?

고통보다 깊은 선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깊게 그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배신,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깊은 심오함(sweetness)으로 말이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창45:5, 7). △형들에게는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

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3-4).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역을 구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아름다운 사역이다. 요셉은 그가 겪은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 하신 일들과 비교해볼 때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형들의 모든 악한 의도들도 노예생활의 모든 학대들도 감옥에서의 모든 부당했던 날들도 말이다.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당신은 이토록 귀중히 여기는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도여, 당신의 부모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운데 있다. 요셉과 함께 당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내 부모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며,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형들의 사과를 구하며 살지 않았다.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는 요셉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형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요셉은 비통함과 억울함에서 자유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사신 자유를 누림에 있어 부모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그들이 당신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통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가족에게 당한 배신

요셉은 열 명이나 되는 자신의 친형들에게 배신당했다(창 37:18, 28). 요셉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했던 형들은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창 37:18), 나중에 노예로 팔아 버리기로(창37:28) 공모했다.

어쩌면 친형제나 자매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요셉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도록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그 구덩이에서 꺼내어 적은 돈을 받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노예 신세가 되도록 요셉을 팔아 버렸다. 형들은 동생 요셉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짐작도 못한 채 단지 그들 눈에 거슬렸던 요셉을 드디어 없애 버렸다는 것에 기뻐했다. 이 일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소식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수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살이를 통해 권력의 자리로 옮기셨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 애굽 왕 바로(Pharaoh)에 다음가는 최고 권

력자로 만드셨다. 각국에 심한 기근이 들자, 요셉의 가족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들은 부지중에 그들이 배신했던 동생의 발아래 엎드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걸하게 된 것이다.

요셉은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 혐의가 있는 형들을 바로 알아 보았다. 요셉의 위치는 피해자에서 재판관으로 바뀌었다. 이 이

야기는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절정에 다다른다.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에 합당한 형벌을 알기에 마음이 심란해졌다(창45:3). 이런 그들을 향한 요셉의 말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말들 가운데 하나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45:4-5).

당신은 요셉의 말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아니, 요셉,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의 형들이 당신을 노예로 팔았고, 애굽에서 죽으려고 당신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다시 말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창45:8).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창50:19-21).

요셉은 형들을 살인 미수범들로 대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로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벌하는 대신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약속했다. 무거운 억울함과 비통함을 제쳐두고, 그의 참담하고 악몽 같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다(벧전5:7). 형들이 저주받아 마땅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축복하기

스스로 정의 실행하거나 변명, 보복 필요 없이 하나님께 의탁 가장 위대한 선: 고통중에도 타인에게 하나님의 선 이루는 일

17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창50:15). 요셉이 베풀어준 용서와 친절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이 당연히 보복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셉은 연민과 애정으로 울며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로 선택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진 것이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놀라운 인내와 친절은 사도 베드로가 사라를 묘사한 것과 비슷하다. 사라의 남편이 거짓말로 그녀를 위협에 처하게 했을 때 (그녀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벧전3:6).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다. 요셉도 자신과 형들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스스로 정의를 실행하거나 변명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전하소서”(창45:11).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은 아마도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적었듯이 말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 (13면에서 계속)

찰스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역시 침례교 고백서에 대하여 논하면서 “이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가장 가까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는 그의 저작 ‘생애와 시대’(Life and Times)에서 이 회의의 특성과 가치에 대해 “거기에 모인 신학자들은 탁월한 학식과 경건을 구비한 사람들로 목회적 역량과 충성이 뛰어난

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없으나, 그들은 내가 아는 진리를 담대히 말하였다. 즉 신조의 모든 역사적 정보와 우리에게 남겨진 다른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사도시대 이후로 기독교 세계는 돌트 총회와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들의 대회를 결코 가지지 못했다”라고 칭송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찰스 1세의 죽음과 함께 찰스 2세 왕정복고 전까지 계급 구조적인 성공회가 사라지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적인 교회

정치가 시행된다. 모든 영국 교회가 자율, 평등, 그리고 교회 사이의 연합이 실현되어 마치 영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은 분위기였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내란(청교도 혁명)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했다.

1647년 총회는 의회에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의 승인을 요청 하였으나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 즉, 국가가 교회정치 업무를 주도하는 것을 지지했던 의회는 조건부 승인(20,30,31장 거부)한다.

1649년 8월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예배모범(1645년)과 정치편람(1645년), 신앙고백서(1647년), 대, 소요리 문답서(1648년 9월 15일 의회 최종승인)를 채택했다.

1661년 반 청교도주의자 찰스 2세(Charles II)는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신앙고백서를 무효

화한다. 1690년 6월 윌리엄 3세(Wil-liam of Orange 3) 때, 다시 의회가 신앙고백서를 비준했다.

2020년 현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의 신앙과 사상의 모체요 삶의 열매가 되었고, 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이 사용하는 교회사적 유산이 되었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도 1907년 최초로 12신조를 작성할 때 그리고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권징조례, 교회정치 등을 제정할 때 여과 없이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의 표준문서들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계적 교회로 성장하는데 큰 한 축을 담당했다.

[필자주] 7)웨스트민스터총회는 R. C. 스프로울(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1), 서요한(영국 청교도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소고), 오덕교(청교도 이야기), Thomas Leishman(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저서와 논문, 그 외 자료들을 참조했다.

[알림] 본 연재 글의 순서가 지난 호와 바뀌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량 바랍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